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電話本局 一九一 一番 一九一七番
振替京城八七八一番

社說

物價騰貴와 勤勞大衆
─俸給賃金引上要求는當然─

一

世界的物價高와 國防産業擴充計劃에 伴하는 彪大豫算을 溫床으로한 昂騰一路의 物價가 大衆生活에 一大脅威가 되고잇는 것은 目前에 當面한 事實이어니와 收入增加가 物價騰勢에 追隨할수업슴에 加하야 彪大豫算에 伴하는 增稅, 特히 煙草, 郵便料金引上等을 爲始한 大衆增稅의 影響은 漸次 深刻化하야 勤勞大衆의 生活은 時時刻刻으로 急迫을 告하게되어 마침내 生活擁護를爲한 增俸, 賃金引上의 烽火가 各方面에서 일어나게되엿슴은 至極히 注目할 現狀이라고 안할수업다。即 前者 東武鐵道乘務員의 總罷業, 東京市電爭議等을 爲始한 賃金引上要求의 勞働爭議가 날로 增加하야 世人의 注目을 끄을게되엿든것이 이제와서는 遞信從業員은 勿論 大家族主義를 자랑하여온 國鐵에서까지 增俸運動이 起하게되어 이제와서는 全般的인 大衆運動化하야 重大社會問題가되게되는터이다。

二

現今의 物價가 度를 지나친 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이高騰한物價에 對比하야 俸給이나 勞賃은 거의 上向되지 안헛다해도 過言이 아닌 狀態이니 이러한 事情下에서 生活擁護를爲하야 增俸이나 賃金引上을 要求함은 오히려 事理當然하달이아니겟는가? 이제 日銀調査의 東京小賣物價指數平均을 보건대 大正三年七月을 一〇〇으로한 物價指數는 去年七月에 一五七、六이엇든것이 今年三月에 一七一、〇을示하야 去年七月에比하야 七八分가량의 騰貴가 되어잇는데 反하야 勞賃指數(日銀調査)는 大正十五年을 一〇〇으로하면 定額賃銀은 去年一月의 八一、〇에比하야 今年一月은 八一、五로 겨우 〇、五의 上向이며 勞働力의 不足을 示하는 實收賃金만이 昨年一月의九一、三에 比하야 今年一月이 九一、七로 相當한 向上을 보엿슬뿐이어서 事實上 賃金引下나 다름업는터이며 俸給生活者에게 잇서서는 同今 增給이라고는업섯스니 더욱 그比率은 말할것도 업슬것이다。그들이 生活擁護를 絶叫함이 어찌過然이며 또한 過分한行動이랴?

三

勿論 爲政當局이 物價騰貴란 이事實이 國民生活의 脅威가 되는것을 모르는바도 아니오 또 이에 無關心한것도아니다。現內閣은 組閣以後 物價에 對해서는 特別한 關心을 示하엿고 또 現在 物價對策委員會를 設置하야 그根本對策을 講究하고저腐心하고잇는中이다。그러므로 이로써 物價抑制가 效果를 엇게된다면 이우에 더조흘일이업스나 前者에도 指摘한바와가티 軍擴競爭에依한 世界的物資不足이世界的物價高의 根本原因인以上 이原因이 除去되지안는限 國際的物價가 低落될 理가업고 世界物價가 騰貴되는限 日本만의 單獨低落은 如何한 政策으로도 不可能할것이다。그나마 彪大豫算은 今後에도 繼續될 階梯에잇스므로 現階段에잇서서는 財政經濟政策에 淺多의 矛盾을 避할수업슬것이 거의 明白하야 果然 政策만으로써 所期의 效果를 거둘수잇슬는지가 매우 疑問이다。

四

物價만가지고 論之하더라도 國家財政의 膨脹에伴하는 消費增大는物價에 늘 騷作用을하고 그나마 彪大豫算을爲한 增稅는 物價의 必然的騰貴를 誘致하면서 物價는 抑制하려하며 生産力擴充政策도 表面 物價抑壓에 有効할것가트나 實現까지에는 도리어 反騰할 矛盾이잇스며 貿易과 國際收支의 惡化는 爲替에作用하야 爲替軟調가 物價騰貴의原因이되는다고하야 爲替統制를 强化하엿스나 爲替維持를爲해서는 金現送의 繼續, 金價引上은 不可避라고보며 도리어 物價刺戟할 危險이업는바아니며 爲替管理가 貿易管理에까지 이르다면 不必要物의 輸入을 防止하야 貿易尻惡化는 防止할수잇슬지모르나 이는 도리어 軍需關係品以外의 物品의 國內品薄을 誘致하야 도리어 反騰氣勢를 助長할 憂慮가 업다고도 할수업는 것等 幾多의 矛盾을 指摘할수가 잇슬것이다。勿論 그러타고 政策이 반듯이 無効果일것이라고 斷定하는것이 아니라, 이以上의 騰貴를 抑壓하는데는 有効할지라도 큰 反落은 期待키 어려운 事情에 잇다고할수 잇슬것이니 이런 意味에서 高物價는 相當한 長期間 繼續될것으로보고, 物價抑制에 對한 對策을 講究하는 同時에 國防産業擴充計劃과 國民生活의 安定이 자칫하면 兩立될수업는것가티 보이는 點을 考慮하야 俸給生活者 또는 勤勞大衆의 生活이 物價騰貴로 急迫을 告하고잇는데 對하야 特別한 用意와 對策이 잇서야 할것으로 確信하는바이다。

特別議會目標下 政策本位로邁進
總辭職은解散을無意味化
陸相, 首相에强硬進言

林首相

杉山陸相

【東京電話同盟】六日首相官邸에서 行한 林首相과 杉山陸相의會談은 時節이 時節인만큼 各方面으로부터 非常히 注目되여잇는데 會談內容은 日滿關係의 一切에 亘하야 滿洲國의 治安狀況을 爲始하야 經濟問題等을 主로하고 더욱 杉山陸相으로부터 今後의 對滿方策에 關하야 希望을述하고 首相에게 諒解를 求하엿다한다는데 杉山陸相은 今日의 時局에 關하야 這般總選擧가 與黨과 野黨의 政爭이아니라 要컨대 政黨의 態度如何에 依한것임으로 總選擧 結果 政民兩黨이 衆議院에서 多數를 占하게되엿다할지라도 그것은 最初부터 明瞭하엿고 따라 이것으로써 政府가 進退를 決할과如한 것은 解散을 無意義하게 하는것임으로 政府는 特別議會를 目標로 政策本位로 進行할것이라함으로 이點에 對하여도 首相에게 强硬히 進言한것이아닌가 觀測된다 首相으로서는 近近適當한 具體案을考慮할생각이다는 旨를 述하고도

十一日議員總會
倒閣을正式決定?
政友會態度去益强硬

【東京電話同盟】林內閣은 總選擧의結果 反政府陣營이 壓倒的勝利를어덧슴에不拘하고 依然時局擔當의意思를 버리지안코去三日留任聲明을發하는同時에繼續하야政府部內로부터는强硬한放送을行하며 또議會에는 政府는再解散으로써臨할 方針이라는旨의風說이돌고잇는데 이에對하야 政友會에서는

現內閣의 議會는 이미다하야 아무經綸이업슬뿐 아니라 再解散으로써 脅威함과가튼것은 國民의 總意를 蹂躪하고 立憲政治의 大本에 反하는것이다 如斯한 政府가 一日이라도 存續하는것은 國家를爲하야 一日만치 損失이 되는것이다

라고擧黨一致的으로倒閣에一路邁進하게되엿다 그리고 政府側의意向은 再解散으로써 脅威한다면政黨內部의 統一이 擾亂되여그結果政府에 有利한 局面이展開되리라고 밋고잇는듯하나 黨內의結束은 자못 鞏固하야 十一日本部에 議員總會를열고內閣의存續을不許한다는旨의强硬態度를 正式으로 決定하기로되엿는데 黨內少壯分子의 사이에서는 如斯한 決議만으로 政府의 自發的桂冠을 기달리는것은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수업다하고 民政黨의 少壯分子와 共謀하야內閣打倒의 共同戰線을 펴고저하는一方 黨議決定을 기달리여 兩黨幹部가 提携協議하야 十六日頃內閣打倒의 政民合同懇親會를열고 運動을開始할方針이라한다

高物價에反映
勞働爭議激增

【東京電話同盟】高物價의 脅威는 大家族主義를 자랑하는交通動脈國鐵까지도 動搖시키며 賃銀値上騷動의 風潮는 바야흐로燎原의 火焰과가티 全國에波及하야 그칠바를 아지못하는 情勢이다 六日內務省社會局으로부터 發表된 今年一月부터 三月까지의 勞働爭議統計에 依하면 爭議件數七百四件 參加人員六萬三千百九十七人으로 勞働運動이 旺盛하던大正中期에 匹敵할만한 驚異的數字를 示하야 勞働爭議는 景氣가 幾分좋아슨 再昨年頃부터 조금식 增加하는傾向을 示하야 昨年은 一月부터 三月까지 爭議件數三百九十一件參加人員一萬四千九百二十七人이던것이 今年은이數字를 헐신突破하야 件數는昨年의 同期에 比하야 約十八割 人員은 五倍이나 激增하엿다 그리고 이爭議內容을 産業別로보면 機械金屬、製造工業이 斷然 首位로 百四十一件 次는染織工業이 百二件 化學工業이百一件이다 이것을 要求內容別로보면 七百四件中賃上要求가 三百七十四件으로 昨年同期의 三百九十一件中 九十九件에 比하면 實로 雲泥의 差異이다 이것은 物價高에 依하야 直接으로 生活難에 시달리고잇슴에 起因한 것이라고는하나 勞働者의 積極的攻勢時代의 現出로서 注目된다

軍艦足柄
九日사잠프톤入港

【倫敦五日發同盟】日本巡洋艦足柄은 英帝戴冠式記念觀艦式參列次로 目下地中海를 航行中인데 九日午後四時前後사잠프톤에 入港할 豫定이다 足柄은 同夜燃料를 補給한後 十日早朝發포-츠마스港에 向하야 午前七時三十分同軍港에 到着하게되엿다

辭令

總督府事務官 土地改良課長 岸勇一
命農林局農村振興課長
總督府技師 水利課長 橋本斤太郎
命農林局土地改良課長兼務
總督府事務官 農村振興課長 景山官景
命總督官房審議室勤務

獨伊提携强化에
쵸코首相反對提議
도나우各國間經濟協力確立코 獨伊支配權은不容認

【倫敦六日發同盟】所謂 伯林、羅馬樞軸의 强化를 契機로 도나우國際政局은 將次 獨、伊兩國政府의 合縱線下에 席捲되는듯한 形勢를 示하게되엿다 쵸코슬로바키아首相 호자氏는 英國皇帝戴冠式에 參列키 爲하야 倫敦에 赴한 機會에 對策을 提示하야 英佛兩國政府의 全的支持를 要請하리라고 觀測된다。호자首相의 提案은 도나우諸邦을 一體로 經濟圈을 組織할것을 骨子로하는것인데 要旨는 左와如하다

一、도나우各國間의 經濟的協力關係를 確立함
一、新經濟圈으로부터 獨、伊兩國政府를 排除치아니함 但獨伊兩國政府가 支配的勢力을 享受할것을 容認치안는다

호자首相、墺太利外務次官슈미트氏 유고슬라비아攝政폴殿下等을 擁護하는 方策下에 英佛兩國政府에 新提案을 提出할意向이라고 傳하는데他方 墺太利外務次官슈미트博士는 어든英外相에對하야 自國의領土完整에對하야거듭聲明을 發하도록 要請할方針이라한다 슈미트博士는 獨逸政府의 南進策이 着着進捗되는此際 墺太利政府가 民主主義各國의 支持업시는 到底히 이壓力에對抗할수업다는 旨를 强調하야 어든外相의深甚한考慮를 促하는 意圖라하는데 英佛兩國政府가 以上一切의 對案에 難色을 示할境遇에는 도나우各國代表는左의 諸點에對하야 英、佛兩國政府의 最後的決定을質問하게될것이다

一、獨逸政府의 勢力이漸次도나우政局에 浸潤되는 事實에對하야 英、佛兩國政府는 萌擁에이서 如何한 態度를 取할터인가
一、西歐民主主義各國은 墺太利 쵸코슬로바키아兩國의 運命에 對하야 現在以上의 關心을示하는가 羅馬伯林樞軸으로부터도나우政局을 支配하는것을 默認할터인가

推移에對하야 英佛兩國政府가 深甚注意를 拂하는것은 말할것도업다 羅馬伯林樞軸强化에 對抗하야 巴里新聞界는 벌서부터 佛國政府의 具體的工作의 效果를豫想하고잇슴으로 호자首相의 倫敦進出을契機로『미텔오이로파』(中歐)의 再現을 企圖하는 獨逸政府의方針과 도나우經濟圈確立으로 墺太利國의獨立을支持하려하는『民主主義國』의企圖와는 歐洲의十字路도나우政局에잇서 자못尖銳하게對抗하게될것이다

獨伊會談成果內容

【羅馬六日發同盟】獨伊兩國代表는 數次에亘한 會談結果 五日午後共同콤뮤니케를 發表하엿는데 會談成果로 羅馬外交界가 傳하는바는 左와如하다

一、羅馬伯林樞軸의開放
獨伊兩國政府는 다른各國과緊密히協力하야 平和保障에 最善을다하기로決定하엿는데 以上의趣旨는 羅馬伯林樞軸을널리各國에開放할意味라한다 兩國間의 共同戰線은 伊太利政府가 聯盟國의 經濟斷交制에 孤立되엿든當時에 發祥한것이나 現在에는 獨伊兩國政府는 孤立策을取하지아니함

一、打倒볼쉐비즘
獨伊兩國政府는『一九三六年十月의議定書에基하야 同一的政策을遂行』하기로 決定하엿스나 어마同議定書의方針에 遵하야 共産主義打倒에 邁進하고 特히理想乃至政策上 多少蘇聯政府와 連絡잇는 西班牙政權을絶對로 承認치안홀意向이라고觀測된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五日定例閣議는 午前十時二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 林首相以下全閣僚出席하야 伍堂鐵相으로부터 鐵道現業員의 增給要求運動에 關하야報告하야『陳情次上京한 委員도 各各五日朝歸任하엿는바 當局으

林首相으로부터 特別議會에 提出할 法案의 審議促進에 對하야는 먼저前議會에서 不成立된 議案을 爲始하야 林內閣獨自的政策을 提出하고저한다고 思하는故로 關係各省에 잇서서도可及的速히 審議를 進行하기바란다고 各閣僚에 要望하고 最後로 全議員官制案의 修正案을決定, 同時 樞密院에 回附하기로 하고 午後零時三十分 散會하엿다

英帝戴冠式後
大觀艦式節次

【倫敦五日發同盟】英帝조-지六世의 戴冠式 御盛儀를 終了한 五月二十日 스핏츠헷드沖에서海上豪華版大觀艦式이 擧行하게되엿는데 觀艦式에는 조-지五世級型의 主力艦넬슨號로도니-號를爲始하야 本國艦隊의 精銳五十八隻巨艦포-드號 主力艦퀸에리자베스號 巡洋艦런던號等을機軸으로한 地中海艦隊及 自治領艦隊三十六隻外日本海軍의 精銳足柄米國海軍主力艦 뉴욕號 佛國海軍主艦 단켈크號及 獨逸海軍이 世界에 자랑하는 袖珍戰艦 그라프슈페號等 五十隻이 參加 旗艦코롱보號에 坐乘한 總指揮第十巡洋戰隊司令官도우딩少將의 指揮下에 堂堂히 海上을 壓倒할 豪華版을 展開할것이라고 觀測된다 七洋을 支配하는 浮城數百隻은 먼저 포-츠마스港南方으로부터 스핏츠헷드沖에 이르는 全水面에 十餘隊로 分列整列 스핏-포드艦 산산드류-號 主力艦 퀸에리자베스號 넬슨號 뉴욕號等 中央艦列의 先頭를 占하고 各艦艇이 各各 一定한 位置에 列하야 定刻 죠-지六世陛下께압서는 大元帥의 御正裝으로 에리자베스皇后陛下와 御同列 사잡프톤으로부터 御召艦 御用艇빅토리아·안드·알바트號에 御坐乘 산찬드류스號를 先頭로하는 에리자베스號를 艦列의사이를 나압시게되엿다 어때 總指揮도우딩少將의 命令으로 各艦隊는 一齊히 登舷禮를 執行 二十一發의 皇禮砲를울리며 空中에는 英國海軍의 精銳 空軍部隊가 堂堂하게 機翼을 울리고 飛翔 海上의 登舷禮에呼應하게되엿다 御召艦에 艦載하야 各國代表新聞記者를태운 海軍省用艇파트리샤號를 爲始하야 四隻이 順次로 進行할터인데 秩父宮同妃兩殿下께서는 新見少將山座女史를 侍從케하사 따로리샤號의直後스트라스모아號에 御坐乘하실 御豫定이시다 日本軍艦足柄을爲始하야 各國軍艦이御後에繼續할터인대 죠-지六世陛下께압서는 산찬드류-스號 퀸에리자베스號의 隊列을 御親閱하압신後 다시左轉 넬슨號及뉴욕號의艦列에들시사最後로 再次퀸에리자베스號의 艦列의先頭에들어가 投錨 參列各艦隊司令官을爲始하야 各國司令官艦長은 御召艦에 伺候拜謁 皇帝께압서는總指揮도우딩少將에 勅語를 賜하시고 夜에는 御召艦 빅토리아號上에서 盛大한晩餐會를 開催하게될터이다 全艦隊는 一齊로 電飾을 施設하고 不夜의壯觀을 모할것이다 이空前의盛儀를 拜觀하기爲하야 太平洋航路의 巨船아키다니아號 랑카스터號를 爲始하야 小옷드에이르기까지 二百隻에 達하는 遊覽船이 海上에 떠돌것이며 拜觀申請殺到로 日本郵船會社其他各社까지도 申請拒絕로 困難한模樣이다 滿洲同盟倫敦支局長 加藤同盟特派員은 日本新聞界代表로서 호이등감號에 乘船을 差許되며 御名代宮殿下의御召艦後로부터 拜觀하게될터이며 日本巡洋艦足柄에는 皆藤特派員이 乘船하야 盛儀拜觀의 光榮에 浴하게되엿다

英國軍艦三隻
『발세로나』에出動
居留民保護目的으로

【倫敦五日發同盟】카탈로니아地方의 無政府主義分子의 爭擾에 關한報道에依하면 英國政府는在留民保護의見地로부터五日午後近海游弋中의 軍艦三隻을 急遽히 바로셀로나港에 出動하도록命令하엿다한다

米建艦一時中止?

【華盛頓五日同盟】米國政府는最近財政狀態가 豫想以上으로조치못함으로 루-즈벨트大統領도 去四月二十日特別議會에 關한敎書中에서 緊縮政策을 勸告한模樣인바 下院海軍委員會에서도 此等事情을考慮하야 一億八千萬弗에達하는海軍建設計劃을 一時中止하도록 勸告하는것이아닌가觀測된다 이에對하야 海軍委員이오 또下院議員인촬스·밀라氏는財政緊縮上建設計劃을 延期하던지 或은적어도 一時中止하기로決定할지몰른다 委員會는 이미補助艦數隻의建造 航空母艦레키신톤 사라토가號의 改裝에對하야 延期하도록 勸告할것이라고 述하엿스나 委員長빈슨氏는아직 決定하지는안혓다고말하엿다

夕刊後市況 (六日)

◆橫濱 生系 後引◆ 當限 八一六〇〇 先限 八〇〇〇〇
◆兩井 人絹 後引◆ 當限 八〇九〇 先限 八一四〇

第三回 產業視察團員募集

本社 四大綱領의一條인『產業發展』을『모토』로하고 本社는 例年 全朝鮮商工層으로부터 代表的人士를募集網羅하야 產業視察團을 組織하고 벌서 兩次나 日本內地先進都市의 產業文物을 視察한바잇섯거니와 今年에는 第三回로 產業視察團을 募集함에잇서서 例年과는 그 코-스를 바꾸어 百餘萬 우리同胞가 移住七十年來로 勤勤孜孜開發의血汗을 뿌리고잇는 滿洲大陸을 찻게되엿슴니다 滿洲는 歷史的으로나 地理的으로나 우리朝鮮人과는 끈치못할 因緣을 가진곳으로事變以後 六年間 近代 資本에依한 高速度的으로 開發된 變貌는 爛熟期에들어간 日本內地의 產業界와는 別다른 意味로 參考될바 더욱클것을 期必하는바로 商工界諸彥의 奮然參加를 期待합니다

規定

一、視察地 安東、奉天、撫順、鞍山、營口、大連、旅順、新京、哈爾濱、吉林、龍井、延吉、圖們等 十三個所
一、期間 六月七日 京城出發 六月二十六日 歸京
一、團員 三十人
一、旅費 三百二十圓 (車二等、夜間旅行寢臺、旅館一流)
一、資格 商業家、事業會社幹部、工場經營者、農水產業者
一、起點 京城을 起點으로함
一、應募注意 (1) 五月三十一日까지 金壹百圓을添付하야 本社事業部로 申請하되 殘額은 出發前日까지 完納함을 要함 (2) 先納金은 如何한 境遇라도 返還치어니함 (3) 應募人員超過時는 抽籤으로 決定함

001047

朝鮮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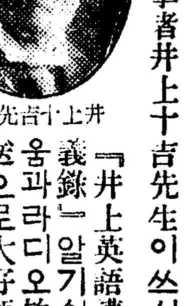
井上英語講義錄
月一圓廿錢・英語レコード贈呈
內容見本進呈 (申込所)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丁目十九番地 井上通信英語學校 振替東京三〇二八八番

青年에告함
新春에는 레코-드附『講義錄』으로 世界의言語 立身의武器 英語는 完全히 내것을 만들자!!

井上英語敎育레코-드吹込者 토-마스敎授

オリムピツク接近の一九三七年 英語の必要を感ずること痛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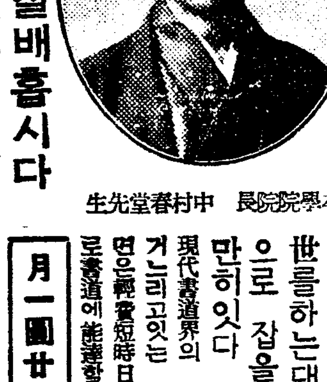
昭和十二年는 躍進朝鮮의 一段好況을 것는해 지금이『英語』를배홀絶好한機會다 英語만은 ○미近代人의常識으로 不可缺한 것이며 中學以上學校에는가장 重要한學科의하나이다 이제英語를모르는사람은立身의第一資格을갖지못한사람이다!! 日本一의英學者井上十吉先生이쓰신『井上英語講義錄』알기쉬움과라디오放送으로大好評인토-마스先生의英語레코


井上十吉先生

-드(無代贈呈)로 自宅서獨習하면
○一個月로 英語를읽을수잇고
二個月로 英語를쓸수잇고
○三個月로 英語를말할수잇다
이가티 훌륭히熟達할수잇습니다
먼저內容見本을 一覽하시오

講義錄月二回雜誌一回 月一圓廿錢・左の附錄贈呈
・特・別・附・錄・贈・呈・
井上英語讀本(六冊)
英語レコード面(十二冊)
英文復習帳(六冊)
英習字帳(二冊)
英語單語カード
受驗單語カード
受驗熟語カード
井上英和小辭典(六冊)
月刊雜誌イングリシユ
米國官選語集(一冊)
東書로申込하면 七十頁지以上의 훌륭한見本을우송합니다

能筆은 一生의寶!
中村春堂先生
泰東書道院總務 美術協會審査員 中村春堂先生 責任御指導
親切한大家의指導로 처음부터잘배흡시다
書道 肉筆本位通信敎授


本學院長 中村春堂先生

書道는 朝鮮의華, 사람은 그筆蹟으로 判斷이되고出世를하는대는 流麗한筆蹟으로 잡을수잇게되는일이 만히잇다
現代書道界의 最高峰으로 門人數千을 거느리고잇는 中村春堂先生의 指導이면은輕費短時日에누구나 自宅에서참말로書道에 能達할수잇게된다
月一圓廿錢★六ケ月修了
入門規則書送呈
葉書로 規則書申込하시오 (申込所)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の四十七 日本書道學院 振替口座東京八三一八八

明治座
5月6日より 上映時間表
京日ニュース 3・30 7・15
唄と踊りと音樂のレヴュー映畫
母の夢 12・30 3・42 7・27
朝日世界ニュース
朱と綠豫告篇 1・30 4・47 8・32
ターザンの逆襲 11・00 1・52 5・06 8・50
割引 大人40錢に 小人20錢に 午前十一時迄早朝御優待

第一劇場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五月六日낫부터三日間大公開
明朗과諷刺의二大巨篇鑑賞週間
每日晝夜三回公演 一回十二時、二回三時二十分(續映)、三回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均一 階下十錢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監督 루-리이센氏
名畫航空十三時間
프렛드·마그마레氏 죤·베넷드孃 죤·하와-드氏 主演
松竹蒲田超特作全-토-키版
原作 稻田草人氏 脚色 池田忠雄氏 監督 野村浩將氏
現代名篇 母の戀文
共演 坂本武氏 高杉早苗孃 小林十九二氏 坪內美子孃
東日大每國際ニユ-ス多數上映
宇宙에漲溢한旋風的人氣! 當五月二日부터空前의超特別大興行
犧牲的大衆席 料金三十錢二十錢
MGM超大作豪華全發聲日本版
巨匠리차-드소-뿌氏大作品!
猛獸人 다-산의逆襲
跳躍王죠니와이스마유라 主演 妖艶모-린오사리반孃 助演
世界的으로一大센세이슌을이르킨 다-산映畫의決定版은新條의銀幕에登場!다-산!다-산!그얼마나奇拔한이름이랴!飛鳥라도驚怯할超人的大活躍은前代未聞의一大壯觀이다
코렴비아超特作全發聲大猛鬪篇 스펜사고-돈배넷드氏監督
戰風幌馬車隊
로바-드아-렌氏主演 마루다지냇드孃助演
大都映畫社特作時代大亂鬪篇 岡田敬監督作品!
切支丹魔伏隼人
伊淳三郎氏主演 藤間林太郎 植松藤兵衛 東龍子 大山デブ子 助演
發聲漫畫 全卷
大陸告平原見귀-톤西班牙嬌亂창클의춤추는怪物

貫鐵町 優美館 電光三九五
五月二日낫부터(晝夜二回) 劇團靑春座 全員熱演
◆待望의傑作繼續上演◆
李雲芳作 悲劇『放浪者』三幕
放浪은人生의詩다! 그러나放浪하야家庭을事業을親舊를사랑을버리고永遠한放浪의길을밟게되는本篇主人公의生涯는詩냐? 隨落이냐? 勿失好機하시고活目鑑賞하라
林仙圭作 悲劇 次週特別豫告
殷鍾山作 喜劇 靑操와劉玄德 一幕二場
南宮春案 悲劇 내가사랑하는사람들 二幕七場
喜劇 二等寢臺車 六景

東洋劇場
四日ヨリ七日マデ四日間 階下席十錢均一公開

旅鴉子供連れ
杉山昌三九久佐間妙子主演
地獄の爭鬪
K・O・R社超特作喜劇日本版
ハヤフサヒデト・イ・琴糸路主演
ベートーホーライー主演
やくざ祭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時 第二回 四時 第三回 七時
永樂町 本三〇一四 中央館

臨終一刻前遺言으로 百七十五萬圓提供

京城女子醫講爲始六個所에 順天金鍾翊氏壯擧

김종익씨

문화기관과 사회시설의 빈약한조선사회에 병마와싸우다못해 림종의최후일각을 앗기어가며 일백칠십오만원이란 거대한사재를 공익사업을비롯하야 사회사업에 기부하라는 엄숙한유언을남기고간 근래에듯기드문 특지가의쾌소식이 잇다 그는 조선제사주식회사(朝鮮製絲株式會社) 사장으로 전남순천(順天)읍에고향을두고 현재 부내동숭정(東崇町) 백이십구번지에거주하는 김종익(金鍾翊)(五三)씨로 지난사월이십육일이래 급한병을 어더 대학병원에입원치료중 륙일오후아홉시십오분드듸여 별세하엿는데 이날 저녁때부터 병세가급변하야 도저히 회복될희망이업는형세에이르자 그이도 이것을 각오하엿던지 동팔시경 그의모당아씨(阿氏)(七二)와 유족 부인박혜순(朴惠淳) 녀사를 비롯하야 달은친족、친지、주치의등을병상에 전부불러서 안치고 동향의친우인 박영진(朴永震)씨를 직필자로하야 허약한기운에최후의힘을 도두어 더듬는말로 다음과가튼 내용의 유언서의 작성을 맛치자 얼골에는오히려우안과만족의 미소를띄우며 이세상을 떠난것이다

一、府內貫鐵町一四〇番地京城女子醫學講習所를 女子醫專으로 昇格식히는期成會에 三十萬圓

一、同女子醫專附屬事業으로 結核療養院新設費로 三十五萬圓

一、順天邑中等學校設立期成會에 二十萬圓

一、順天邑에잇는 鬱樵育英財團新設基金으로 六十萬圓

一、順天社會에 公共事業으로 十萬圓

一、東崇町에잇는 住宅駱山莊을 팔어가지고 二十萬圓으로 京城市內에서 社會事業에쓸것

등으로 총액일백칠십오만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유언서에는 결핵료양원은 이것을 평수기념료양원(平洙記念療養院)이라고 하야달라고 부기하엿다 또그이에게는 맛아들 두수(杜洙)(二)군외 이남이녀가잇다

溫厚、篤實의人

個人生活의安逸을생각안튼 故人의아름다운性品

조선사회에 거대한 사재를던지고간 고우석(友石) 김종익씨는 전남순천읍내행정(順天邑內幸町) 고김학모(金學模)씨의 맛아들로 명치삼십구년 음칠월륙일 고고의 소리를 울렷다 그때의 시조에따라 고향에서 한문수학을하다가 천성이 영매한 그는 그것에 만족지안코 청운의 뜻을품고 동경으로 건너가 명치대학 법과를 마친것이 대정륙년이엿다 조선에 도라온 그는 가사에 종사하다가 소화 팔년 봄물경기의 구렁에 빠저 재기의 희망이업든 전기조선제사회사를 인수하야 자본금 백만원의 대회사로 완성하는한편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에 부단의노력을 앗기지안허왓다 즉작년도에만 순천농업학교설립에 사만오천원 보성전문학교에 일만이천원、조선뢰병 예방협회(朝鮮癩病豫防協會)에 일만 이천원을 기부한외에 생전에 기회만 잇스면 대소사회사업에 관계한것이 적지만흐며 우리조선사회에 녀자 의학교육기관이업는것을더욱 유감으로생각하고 그는전기녀자의학강습소리사로잇스며 만흔후원을 앗기지안튼것이다 그러고 평소에 그는대단히 겸허한분으로 가정에서는 파뭇은후한가장이요 부친이엇고 사회에서는 민활한활동가로 교우가퍽 넓고깁흐며 취미로는 한시를지으며 서화를몹시즐기며 더욱조선구악에대하야 만흔리해와 취미를 가지고잇서 그유지발전에 만흔후원을하여온 인격자라고한다

孝誠다해育英에 父性愛론療養院

아버지와딸을못이저바린정 오직感激할그의遺志

그가우리사회에 최후의 어바지로 남기고간 유언서에 나타난것중 육십만원이란 거액의묵초육영재단(鬱樵育英財團)의신설은그의 아버지 고김학모(金學模)씨의 아호(雅號)묵초 두자를 따서 만흔 유산을 남기고 아버지의 영을 위로하며 영원히 기렴하려는 아들로 서의 갸륵한 효성에서 소사나온 것이며 또평수기렴요양소(平洙紀念療養所)라는것은 그가알든이 사랑하든 맛딸 평수(平洙)양이 열네살을 마지하든 지난봄에무서운 결핵병으로 이세상을 떠난 딸의 어린 영을 애무하며 또한 우리사회에서 운명에 허덕이는 젊은생명을 하나라도 구하랴는 뜨거운부성애와 거룩한 동족애에서 나온 것이다

事業完成으로 故人의靈을慰勞

女子醫講金鐸遠氏談

경성녀자 의학강습소장으로 오래전부터 녀자의학전문학교 승격문제로 고김종익씨와 손을잡어오든 김탁원(金鐸遠)씨는 다음과가티말한다

『친구의 한사람으로 먼저그의서거를 애석히 생각하는바올시다 생전그는 녀자의학교육에 김흔리해를 가지시고 우리강습소리사로 게시면서 만흔 후원을 하여주시든 남어지 오늘밤다시 유언으로서 이와가티 거액의 사재를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에던저주시니 사회인의 한사람으로서 무엇이라고 치하의말슴을 드렷스면 조흘런지모르겟습니다 저로서 말슴드리는것은 미안하오나 순천읍에게신고

社會社業에는 平素도熱心

그의유지를완성할뿐이라고 李氏金鍾弼夫人談

의외의 비애에 잠겨잇는 유족가운데서 그의계씨 김종필(金鍾弼)씨부인유영준(劉英俊)씨는 애통안 비체잡겨 다음과 가티말한다

『그는거대한 유산을상속한 후에도 한푼 헛되이 쓰지안흘뿐아니라 가정의살림에는 극도의 절약을한분이올시다 그리고 사재라고해서 개인의사치호사에 쓰는것을 당연한체하는사람은 재산이 무엇인지 사회가 어떠한것인가를 전혀모르는 사람으로 가장비천한사람이라고 할수박게 업다고 항상말슴하여왓스며 기회만잇스면 사회사업에 사재를던지는것을 신조로 하여왓습니다 더욱이 병석에누으신뒤에도 항상저의게한데 후게하시는말슴이 사람은 먹을것만잇스면 되는것이다 여재는마당히 사회공익사업에 쓰는것이 사회인으로서의 의무라고 하시며 내가이번사리나면 좀더큰사업을 한번하겟다고 말슴하셧는데 다시 이러나시지 못하고그냥 도라가신 지금 무엇이라고 말슴할 여지가 업슴니다 그러나 유언서로나마 이와가티적지안흔 사재로 사회사업에쓰라고 말슴을 남기시고 가신것은 유족으로서 비통한가운데도 다소만족히 생각되는바올시다 게씨김종필(金鍾弼)씨의상경을 기대려 유족을중심으로유언집행위원회(遺言執行委員會)라는 것을 조직하야 하루밥비고인의지도에어그려지지안토록 모든사업을 실행하야나가게 될것을 밋습니다 유언으로 남긴사업의 완성만이 천하(泉下)의 그를 위로하는 유일의길인가합니다』

普專崔斑宇氏 英京에留學

六日午後出發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교수로 잇는 시내창신정(昌信町)최정우(崔斑宇)씨는 금번영경륜돈에유학하기로되어륙일오후네시오분 경성역발 『아까쓰키』로 출발하엿다 씨는 칠년전 동경제대(東京帝大)영문과를 졸업한 청년영문학자로 그간보성전문에 삼년간재직하고 금번륜돈의길을 떠나게되엿는데 륜돈에서는 『유니버시티』 대학에서 삼년간 영문학을 연구하고 다시 일년은 불란서에 주로 류할예정이라한다 로정은 이달중순 신호(神戶)에서배를타고 『말세유』를경유케되리라한다 (사진은최정우씨)

山火防止急警告

農林局、各營林署에

각도산화화신(火神)一매년 그씨준을따러 발호하야 해마다 막대한피해를보아오든중 금년에는 미증유의대산화가 각지에서 거의일시에 일어나서 그피해액도 백만원에 가까우리라 한다 이산화방지에대하야는 매년각도영림서(營林署)에 통첩하야 그방지에 로력하야 오든것인데 금번에는 일시에 이러나는 각지대산화가 너무 엄청나고 놀라울정도로 총독부농림국에서는 륙일아침에 각도영림서에 산화방지에 철저로력하라는전보통첩을 급히발하엿다

事業官廳現業員 增俸、優遇法考慮

物價高와는別個로趨勢에順應한다고 遞信、鐵道兩局長言明

사업관청현업원의 증봉문제가일어나고잇는 작금 총독부국장회의에서는 길전(吉田)철도 산전(山田)체신 량국장으로부터 각각 현업원의 증봉과우우에대한것을 고려중이라고 언명하얏다 아직구체적내용은 말하지는안햇스나 최근의 물가고와는 별개로일반경제추세에순응한것이라는것을 강조하고 전매국과영림서방면에도 밋칠것이라는데 대체로년중에는 실시할모양이다

乘降에不便한 舊式跨線橋

重要驛일스록混雜이더甚해 鐵道局에서考慮中

조선철도국선으로경부(京釜)경의(京義)경원(京元)호남(湖南)등 각선의 주요한 정거장에는 승강장(乘降場)으로왕래하자면 반드시 『오버뿌릿지』(跨線橋)를통과하게되므로 승객의 불편이적지안타 더욱이 손에 짐짝을든 늙은이나 어린아이들은 만흔승객이 압흘 다투어 서로 먼저 타고 또는내릴려고 하는틈에끼여서 、머저터잡을 이르키며 그때문에 기차를 노치고말때를 보게되는 일도만타 그래서 승객들은 이『오버뿌릿지』를 지하도(地下道)로 고치거나 다른편리한방법으로 개량할수업는가하야 속히 개량할요를 부르짓고잇다 이에대하야 철도국 강기건설과장(江崎建設課長)은 다음과가티이야기한다

정거장의 지형을 따라 지하도로 고친데도 더러 잇지마는 아직 주요한 정거장에는 그냥 『오버뿌릿지』대로 그냥사용하고잇다 서양가튼 데서는 『에스카레타』를 설비한 정거장이 만흐나 조선의철도승객은 아직 숙련하지 못하엿스므로 『에스카레타』가튼것을 사용하게되면 도로혀 넘어저서 부상할 우려가잇다 그래서 압흐로 신축할 정거장에도대체로는 종래의 방식대로 『오버뿌릿지』를 가설할밧게 다른도리가 업겟다

七十老人이 모터ー轢死

【[illegible]】지난오일오전구시경 철도국남원보선구(南原保線區)소유인모ㅣ타가 전주를향하야 질주하든중 오암리(梧岩里)압철도우에서 임실군삼계면향전리(任實郡三溪面香田里)에 거주하는 김갑기(金甲基)(七〇)라는 로인을치어 즉사케한사실이잇는데 사실은신리전주간철도선수선공사(新里全州間鐵道線修繕工事)가 잇서서그공사장을감독코저 보선구장 암상(岩上)씨를비롯하야 원등감독(遠藤)을태우고 동일도(東日道)『ㅎ』라는 국원이운전하야 질주하든중 의외에도 김갑기가철도에올라서발을드듸랴할지음 모ㅣ타가치고나가는바람에 개천에떠러지게되야 뇌부(腦部)에중상을 입어즉사한것이라고한다

全南再建事件 第一回公判開廷

五日光州서被告七名出廷 一瀉千里로審理進行

【광주】조선공산당전남재건사건 좌행옥(左行玉)(二三)등칠명에대한 치안유지법 위반피고사건은전남경찰에 검거되여 사개년만에 오일오후두시부터 광주법원제일호법정에서 상야(上野)재판장주심 장(張)중야(中野)량배석판사 향천(香川)검사립회하에제일회공판은 개정되엿는데피고일동중 김종태(金鍾泰)(二二)은륵막염으로 신음하면서 출정하엿섯고 그외는 전부가 창백한얼골이나 대개건강한 모양인데상야(上野)재판장은 피고일동의주소성명을 무른후 심리는좌행옥(左行玉)부터 진행하엿는바 전부가 사실을시인하고 심리는 의외에 일사천리식으로 진행하야 동오시에 전부심리는 끗을지엿다 그러고 좌행옥리홍연(左行玉、李烘衍) 두피고를 제외하고는 전부가전향할것를 언명하엿는데 제이회공판일은 오는십구일로 되엿다한다 당일출정한 피고는다음과갓다

▲濟州島大靜面新桃里三〇三二 無職 左行玉(二三)
▲羅州邑北門町一一五 勞働 李烘衍(二〇)
▲長城郡北上面水坪里二七二 農業 湯鎭豐(二二)
▲光山郡孝池面洪林里七一五 無職 姜大佑(二六)
▲光山郡松汀面片山里 農業 朴在凡(二五)
▲務安郡二老面山亭里 農業 金洪根(二七)
▲木浦府山亭里七二 印刷工 金鍾潤(二三)
▲濟州島大靜面新桃里 無職 金秀休(二五)

現金時計盜難

【楊市】지난사일밤 열두시삼십분경에평북룡천군양시 옥정옥(玉正福)씨집에 어떤자가 주인이자고잇는사이에 침입하야 주인의옷속에드러잇든 저고리주머니속에 드러잇는 시가 약사십원짜리시계하나와 현금오십오원지사전이라는바 방금소관양시주재소에서는 범인을 엄탐중이라고한다

初夏의香氣……(만개한등꼿)

사랑의"윈자"公

심프슨부인과의결혼압두고 豪華의密月旅行은?

【몬트六日發同盟】『윈자』공은사일오전한시반『칸데』성에 도착 『월트롤드』가(家)의 『월·스헤쉬』의 옛이름으로 도라간애인 『심프슨』부인하고 오래간만에 어대면하엿다

오일은『칸데』성에서 친히 신문기자단을 인견하고 반가운녹허니문(蜜月)을 『오스트리아』로 정한것을 발표하엿다 이밀월여행에대하여서는 일절언명하시지안햇스나 『죠ー지』륙세의 대관식(戴冠式)이 끗난후에 거행될모양임으로 세기(世紀)의 연애도오월말까지에는 『해피·엔드』를 지을리라고한다 그리고 유월초순에 『칸데』성을 출발하야 『티롤』방면의 산으로 밀월여행을 떠나리라고한다 형군(兄君)『윈자』공의 어신변에대하야 일상 마음쓰시고잇는 『죠ー지』륙세페하는 어결혼이 끗나는대로 어내도금(御內帑金)십만불을 보내기로되여 측근자를통하야 『론돈』으로부터 전화로 이와가튼 이야기를『윈자』공에게 통달하실 예정이라고한다

裁縫機械窃盜

【釜山】지난오일오전두시 부산부영정(榮町)삼정목에잇는『싱거』미싱회사 초량지점 류리문을부시고드러가서 재봉기(裁縫機)두대(시가삼백원)를절취하야 간자가잇섯다는데、부산경찰서에서는 방금범인을엄탐중이라한다

盈德江口서 傳馬船沈沒

경북영덕군강구면강구항(盈德郡江口面江口港)입구에서 오일오전일곱시경에 토목과강구항수축공사

楊平赤峴에大火 十六戶全燒

二十八戶의部落이半廢墟로 八十餘罹災民暗澹境

【楊平支局電話】오일오후네시경 경기양평군룡문면조현리적현(楊平郡龍門面朝峴里赤峴)부락 류칠성(柳七成)방에서 불이나서 마침 강하게부는 서북풍에 불길은 것잡을사이업시 사방에퍼지고 겸하여 그곳은 외딸은촌락이라소방의 설비가 업는탓으로 발새도록 탈대로탄것이 전부락이십팔호중 십륙호를 전소케하엿다 요행사망자는 업섯스나 두사람이 중상을 당하엿고 리재민팔십여명은 방금갈곳을일코 비참한가운데 헤매고잇다 원인과 손해는 아직조사중이다

御徳用재봉틀各種

씽거ー製(中古品五個年責任保證附)

一五種足踏式 百五圓부터

十五種手廻式 九十圓부터

國産機(新品)

十五種足踏式 七十五圓

十五種手廻式 五十五圓

市內에限하야月賦販賣

(ミシンカタログ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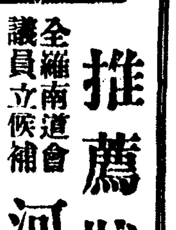
ミシン賣買한다 各色재봉틀高價買入

京城鐘路二丁目二十七 楠商店 電話光三九六番

推薦狀

全羅南道會議員立候補 河憲贊君

君은日本專修大學專門部經濟科出身으로 靈岩商工會社長으로 實業家로 公私兩方으로貢獻이多大하오며 地方의信望과 政見이聰明한 有爲한人材이오니 有權者諸賢께서는 高貴한一票를 河憲贊君에게惠投하심을 切望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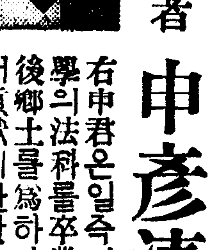
昭和十二年五月 日

立候補者 河憲贊君選擧後援權會志一同 白

靈岩郡有權者 諸賢

推薦狀

平安北道會議員立候補者 申彦清君



右申君은일즉이東京明治大學의法科를卒業하고歸鄕한後鄕土를爲하야公私方面에서貢獻이만햇슴은一般이是認하는바이며 君은實로時代의寵兒요適任者로서 郡民의福利를爲하야 明晳한頭腦、敏活한手腕、突破할役軍으로、豐富한德望이 아무리難問題일지라도 獲得할것을確信함으로 道會議의效果를 確信함으로 茲에右申君을最適任者로推薦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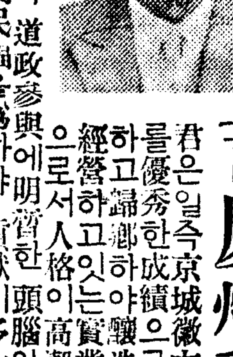
昭和十二年五月 日

推薦人一同 白

義州郡有權者諸氏 殿

推薦狀

全北道會議員立候補 吉慶燮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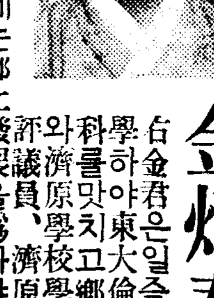


君은일즉京城徽文高普를優秀한成績으로卒業하고歸鄕하야釀造場을經營하고잇는實業青年으로서人格이高潔하고 理論이確立되야道政參與에明晳한頭腦와英敏한手腕으로郡利民福을爲하야貢獻이多大할것을確信하옵고茲에推薦하오니賢明하신有權者諸位께서는高貴한淸票를同君에게賜하시와我郡의信實한役軍이되게하야주심을仰要하나이다

錦山郡有權者有志一同 白

推薦狀

全北道會議員立候補 金炳泰君



右金君은일즉東京에留學하야東大倫理教育學科를맛치고鄕里에도라와濟原學校學監、濟原面長等을歷任하고現在에는鄕土發展을爲하야獻身努力하는一方濟原學校學務委員、錦山金組評議員、錦山煙草耕作組合長、錦山文廟直員、錦山人蔘同業組合理事等地方에잇서要職에處하야多方面으로活躍하고잇는當年四十六歲의人材인지라道政에參與하면明晳한頭腦와豐富한德望이足히郡利民福을可期하겟기茲에推薦하오니有權者諸賢은公正한貴票를君에게惠投하야주심을懇願하나이다

錦山郡有權者有志一同 白

訂正

本月六日附朝刊에揭載된 忠南道會議員立候補 金稔永氏의推薦廣告에 金稔永은 金權永의誤植이옵기 謹訂하나이다

朝鮮日報社大田支局

◇訂正

本報第五七三二號(五月一日)夕刊七面에揭載한 補廣告記事中第五行에 (小生이不敏하고) 候補者로라는의誤植이옵기 茲에訂正하나이다

中津式 アイスケーキ機

京城元町一電停前 中津式冷凍機第二販賣事務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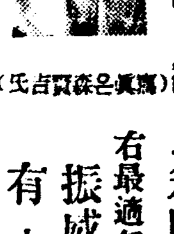
當選謝禮

今般道會議員選擧에際하야本人이當選의榮을得하게된것은一般有權者諸氏의不斷한熱誠의賜物로生覺하와茲에紙上으로感謝의意를表하나이다

昭和十二年四月二十七日

泗川郡泗南面花田里 慶南道會議員立候補者 李池英

京畿道會議員立候補 森賢吉君



(寫眞은森賢吉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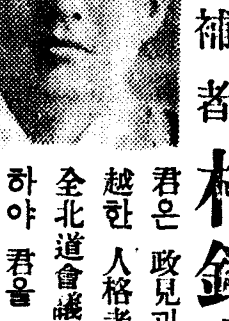
右最適任者로推薦함

振威郡有權者有志一同 白

[illegible]

推薦

全北道會議員立候補者 朴錦孝君



君은 政見과信望이 卓越한 人格者이다 이제 全北道會議員改選에當하야 君을 最適任者로 認定하고 茲에 推薦함

井邑郡有權者有志一同

立候補宣言

[illegible]

井邑郡井州邑長明里 朴錦孝

推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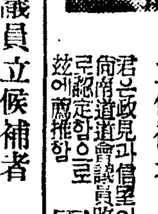
全北道會議員立候補者 殷成河

右全北道會議員改選에當하야 君을最適任者로認定하고 茲에推薦함

井邑郡有志一同

推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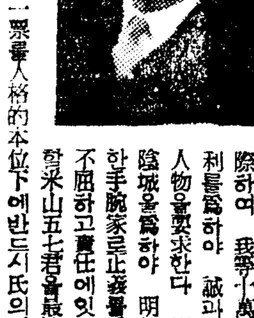
慶南道會議員立候補者 李甲用君



君은政見과信望이卓越한人格者이다 今般慶南道會議員改選에當하야 君을最適任者로認定하고 茲에推薦함

固城郡有志一同

忠清北道會議員立候補者 米山彌五七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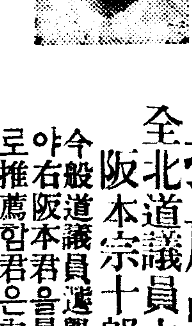


陰城郡有權者有志一同

陰城郡有志一同

推薦狀

全北道議員立候補 阪本宗十郎君



今般道議員選擧에際하야右阪本君을最適任者로推薦함 君은內地兵庫縣出生으로일즉이鄕里에서教員生活에從事하다가明治四十三年에뜻을세워渡鮮하야當地錦山新學校에서教鞭을잡게되엿든바約一年後인同四十四年에錦山學校組合議員、同組合管理者、錦山金融과農場을經營하면서一方으로는錦山學校小學校校舍新築、消防組組頭等重職에處하야電燈電話架設其他各方面으로二十餘年間事業과社會事業에功績이多大할뿐外라頭腦와老練한手腕은道政에參與하면郡利民福上에大한貢獻이有할것을確信하오니有權者諸賢은高貴한一票를君에게惠投하심을仰望하나이다

錦山郡有權者有志一同

慶北道會議員安東選出區

投票는最適任者 尹世衡君의게

京城版

京城製菓組合大運動會 來九日京城運動場서

경성부내에잇는 팔십여개소 조선인 과자제조업자로조직된 조선과자상조합(朝鮮菓子商組合)의 제십일회 대운동회는 오는구일(日曜)오전아홉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거행하게되는데 가장 형세잇는 여흥도잇서 상당히 인기를 끌것이라고한다

六百餘名少年中 半數가四顧無親

天性의惡質이냐? 環境의罪이냐?

開城少年刑務所調査

【開城】현재 개성소년형무소(開城少年刑務所)에 수감되여잇는범죄소년은 전부가 륙백오십칠명으로 십륙세이상、십팔세이내의 범죄소년만 수용하는중 보통학교상학년정도이상의 소년은 다른형무소로보내고 이곳에는 무학무식한『룸펜』소년만 수용케되여잇스므로 훈련급 교육방법에잇서서 대단히힘든다는데 이중에 외근징역사리를 하는소년이 약팔십여명、남어지오백칠십여명은 공장안에서 직공생활로 징역사리를하고잇다한다 그러면 오늘날 순진해야만할이들이 어찌하야 범죄자란 낙인(烙印)을 밧고 고생사리를 하게되엿는가 하는 원인을 형무소당국자로부터 드러보면 이곳에 형을밧고잇는소년들은 천성이 악해서라느니보다 그들의 눈물겨운 생활환경이 범죄의결과를 매저주는 것으로 왜그러냐하면 그들의약 반수가량은 부모가업시 사고무친하게 자라난아이들인만큼 무의무탁한 생활환경이 절도범죄를 저즐르게하는때문이요 대부분이 절도초범이라고한다 교육시간은 하로 체조시간까지합처 두시간인데 례를들면가튼일학년에도 그들의품행과 재질여하에따라 륙조(六組)로나누어가르치며 즉륙조에서 배우는소년들은 전부가 말할수업는 저능아(低能兒)로 약삼십칠팔명가량되는데 도무지 말을안드러 교양하기에 참으로 힘든다고한다

無理由出車拒絶

택시ー業者를團束

乘客이鍾路署에告發

정거장구내 택시는 원측으로 철도국의 방침에 의하야 경성역내의 택시도 조일자동차상회(朝日)의손에 독점되여잇는 관게로 오래된것이나 심지어 파손된차체를 배차하야 승객에게 불안을 줄뿐아니라 도시미관상으로도 조치못한 영향을 주고잇스므로 경찰당국에서는 이문제를 중대시하고잇다함은 작일보도한바와갓거니와 여기에또하나 간과하지못할 독점사업의 폐해가잇다 입학시험때가되면 서울을 차저시골서오는 학생과 학부형이 매일 수백명에 달하야 그들가운데는 처음으로 시내의지리가 전연몰라 자동차를 리용하는사람이 적지안흔데 이자동차부에서는 조금만 거리가멀고 교통이 불편한곳이면 다시두말안코 거절하야 버릴뿐아니라 운전수가운데는 손님에대한 태도가대단히 불손한자까지잇서서 서울에 내리자 불유쾌한감상을 갓게하는일이만타 더욱 비오는날에는 다른택시는 역구내까지 드러오지못하는 규측임으로 비를마저가며 다른자동차를 구하거나 또는전차를 리용할수밧게 업는형편으로 일반의불편과 비난이적지안타

이와동시에 륙일오후 시내종로서보안계에서는 종로(鍾路)일정목 모자동차부를 자동차취체규측 제이조『리유업시 손님의주문을 거절하는때에는 처벌당한다』는조문에 저촉되는 행동을하엿기때문에 고발한사실이잇다 이제고발되기까지의 경위를들어보면수일전시내 아현정(阿峴町) 고려병원(高麗病院)에서 신촌방면으로 갈터이니 차한대만 곳보내달라고 전기차부에 전화로주문하엿더니 신촌방면으로갈차는업습니다하고 차가잇스면서도거절하엿다는 리유다 이에분개한 전기고려병원에서는 곳종로서에 이사유를 말하엿기에 그서에서는 전기와가튼 처치를한것이라고한다 이와가티 시내각 택시업자의 리유업시 거절또는 불쾌한태도에 대하야경찰당국은 엄중한단속을할 예정이라고한다

물기잘하는醉漢

오일밤 열한시사십분쯤에 시내 광화문통(光化門通)삼십오번지 김성수(金聖洙)(二○)는 술에 몹시취한채 수송정(壽松町) 류리집 양수빈(梁秀彬)의집에서 한바탕 싸우다가 겨테서 그싸움을 말리려고하는 중학정(中學町)오십번지 김영수(金永洙)의 왼팔을 무러노아서 약사오일가량 치료를하여야할 상처를 입피여 시내종로서에인치되엿다는데 그는 종래부터 술버릇이매우고약하야 술만 먹으면 누구던지와 싸움질을 하는낫분버릇이잇다는것도 판명되여 시내종로서에서 얼마동안의구류처분을 바더다고한다

甕中鼠인強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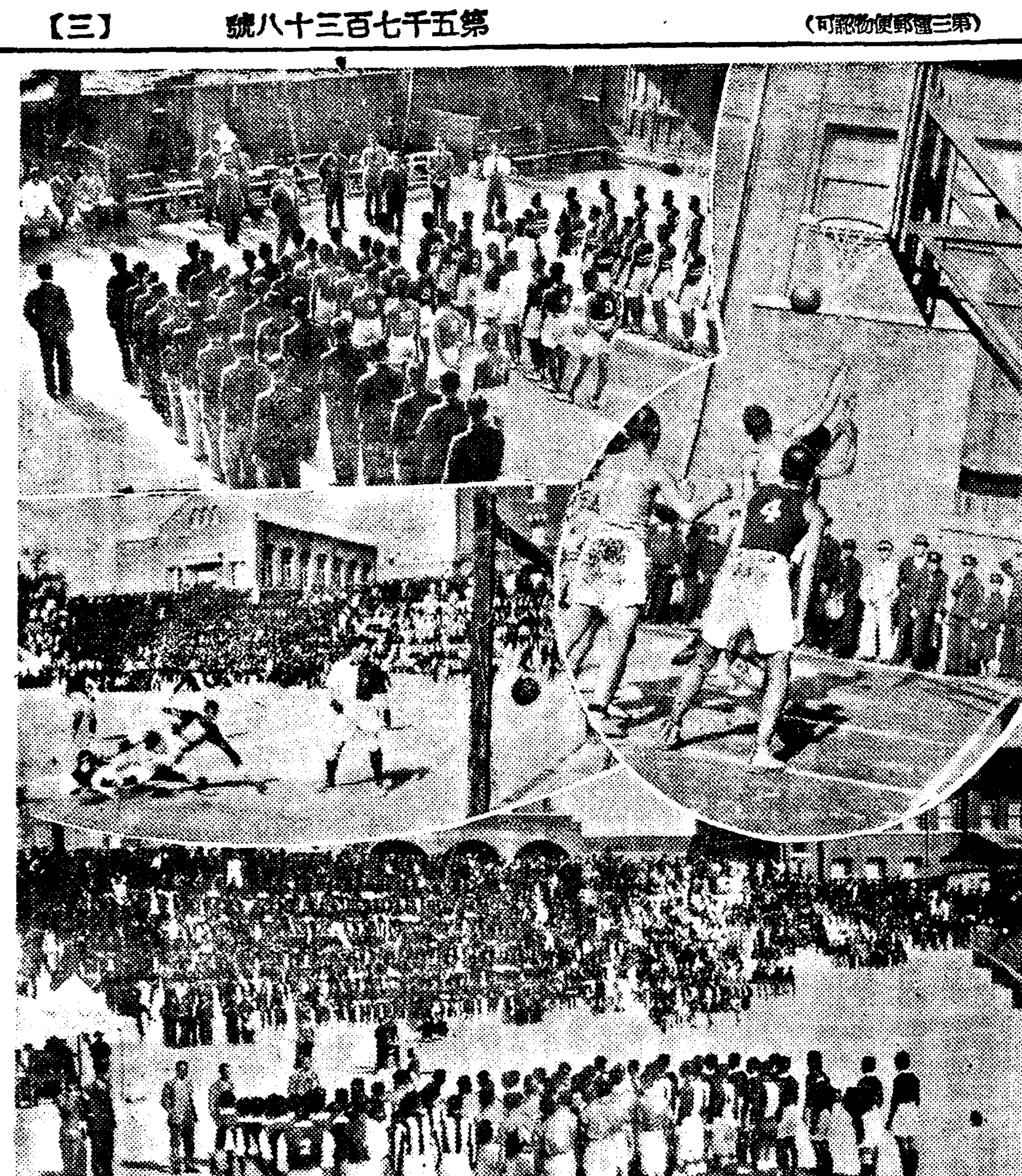
【仁川】기보=부천군영종면운서리(富川郡永宗面雲西里) 엄삼용(嚴三用)(一五)의집에 지난삼십일오전열시경 단도를가진장한한명이침입하야 지금(地金)십사『몸메』와 현금삼원을 강탈도주하얏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그후인천서대전(代田)사법주임은강전(岡田)형사부장과 수명의형사대를동하고 영종주재소를본부로하야 륙지와 섬안에 [illegible] 통과치아니하얏슴으로 범인은영종도에잇는것이 확실함으로 체포는시간문제라고한다

"봄철은窃盜씨즌" 窃盜團長의講義一駒

수일전동대문서에서는 경기도파주군림진면(坡州郡臨津面)출생의 리창식(李昌植)(二○)이란 자를 절도혐의로 취조중 그는십오륙세되는 소년다섯명을 단원으로지내각처로도라다니며 한달동안에 삼십여건 금액으로 약천원에달하는 귀금속등의 절도행각을한 것이 판명되엿다 이자는 나제는 전기소년들을 지휘하야 절도를하게하엿스며밤에는 자신이 제일선에서서 활동하야 절도질을한것으로 그는 취조경관에게 봄날이되면 나제는 빈집이 만흘뿐아니라 사람이 잇더라도 주의력이산만하야 집으로 도적질하기가 훨신쉽다고하며 봄날잔미를 일장설명하고잇섯다

京城版人事

▲齋洞公立普通學校 女子同窓會總會 來八日(土曜)午後三時에 同校에서 開催할터이라한다



昨日의스포ー츠畫報 =上은 第七回籠球聯盟戰의 熱된競技와 入場式光景 中은 入場式과競技光景 下는 第十回中等校蹴球리ー그戰의 白

籠球朝鮮의總勢動員

今씨즌의覇者는?

參加한十五團體의莊嚴한入場式

本社後援 聯盟戰開幕

우리籠球界의 最高峰 延專과普專을 筆頭로 俱樂部와밋 中等學校等總勢十五團을 動員시켜 今씨ー즌의 覇者를 決하는 第七回中等校及俱樂部籠球聯盟戰은 朝鮮籠球協會主催와 本社後援아래 六日午後四時十五分부터 鍾路青年會館後庭코ー트에서 그첫幕을 열엇다 競技開始前에 參加選手의 莊嚴한 入場式이잇서 同大會會長呂運亨氏의 意味深長한開會辭가 잇슨後 昨年度의 優勝팀인A級의養正과B級의培材로부터 優勝旗를返還한다음 選手一同을代表하야 普專主將申光浩君의 宣誓가 잇섯고 本部委員張權氏로부터競技에對한注意說明으로서 入場式을마치고 選手와役員一同의 記念撮影이잇슨後 養正對青學의對戰의競技는 開始되엿다 이리하야 압흐로十五日까지의 日曜日을除한八日間에亘하야 波瀾만흔熱戰을 展開하기로되엿는데 第一日의戰績은 다음과갓다

養正、大東、普專勝

青學、普成、高麗敗退

이날第一次戰에 養正이 青學을 손쉽게이겻고 第二次戰인 大東商業對普成戰은 前年에 優勢를 보이든 普成軍後半에 不振하야 惜敗하엿다 그리고 普專對高麗戰은 普專이悠悠히 勝捷하엿다

養正48（24 24…6 4）**10青學**

【第一次戰】養正對青學戰은 午後四時五十分부터 安台慶、金應錫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 結局四十八對十으로 養正快勝하엿다(게임二十分間)

反	得	【養正】		【青學】	得	反
0	8	李亨權	F	[illegible]	2	3
0	0	鄭光鉉	F	[illegible]	2	0
0	16	崔志善	F	[illegible]	2	1
0	8	申宗淳	C	金秀昌	2	0
0	14	[illegible]	G	[illegible]	0	3
0	2	李德?毅	G	[illegible]	0	1
0	0	[illegible]	G	李大?	0	1
0	48				10	9

大東23（16 7…10 10）**20普成**

【第二次戰】大東對普成戰은 同午後五時四十分부터 李?澤、洪文吉兩氏審判아래 開始되엿는데 結局二十三對二十의 接戰끄테 大東이이겻다

反	得	【普成】		【大東】	得	反
3	3	具?現	F	林順蓮	6	0
0	7	白相教	F	尹寶吉	5	0
0	4	劉在烈	C	金景泰	5	3
0	0	[illegible]	G	[illegible]	3	3
2	6	[illegible]	G	[illegible]	0	0
0	0	[illegible]	G	尹?變	4	4
7	20				23	10

普專44（16 28…14 14）**24高麗**

【第三次戰】普專對高麗戰은 同午後六時三十分부터 張權、田鎭?兩氏審判아래開始된바 結局四十四對二十八의『원사이드게임』으로 普專大勝하엿다

反	得	【高麗】		【普專】	得	反
1	2	尹正燮	F	吳?喆	10	0
			F	申光浩	0	0
			F	李好善	9	0
0	8	尹恒燮	F	崔海龍	8	0
0	8	金容武	C	[illegible]	4	0
			C	[illegible]	0	0
1	2	曹東煥	G	吳?烈	2	0
1	8	李文緒	G	安昌漢	11	0
3	28				44	0

스마일랜드 二千童心의交驩!

5月14日・景武臺에서

參加幼稚園

西大門幼稚園　龍光幼稚園　崇二幼稚園　三光幼稚園　紫霞幼稚園　龍頭幼稚園　惠化幼稚園　東幕幼稚園　輔仁幼稚園

朝陽幼稚園　延禧幼稚園　孔德幼稚園　清進幼稚園　梨昌幼稚園　啓星幼稚園　和光幼稚園　桃花幼稚園　麻浦幼稚園

安國幼稚園　水標幼稚園　往十里幼稚園　櫻花幼稚園　昌信幼稚園　新明幼稚園　新門內幼稚園

(以上無順)

雨天順延

主催 朝鮮日報社

第十回中等蹴球聯盟戰

儆新과培材各勝

中央對中東戰은無勝負

第十回城府內 中等學校蹴球聯盟戰第一日은 六日午後四時十分부터 儆文球場과培材球場에서 一齊히열리엇는데 이날競技開始前에 儆文球場에서 昨年度優勝校인 儆新軍을 爲始하야 儆文、培材、普成、中央、中東等의 六個校選手의入場이잇서 今年度當番校中央高普校長 玄相允氏의開會辭와 優勝旗返還이잇섯고 一同을代表하야 宋一燮君(儆新主將)의 宣誓와 [illegible]氏의 審判에對한 注意說明이잇슨後 競技는幕을 열린바 이날은 다음과가튼 結果로 儆新軍이 儆文을、培材軍이 普成을 各勝하엿스며 中央對中東戰은 二對二의大接戰끄테 無勝負로마치엇다

儆新3 儆文1【前1…1 後2…0】

儆文對儆新戰은 六日午後四時三十分부터 儆文球場에서 [illegible]、宗鎬(球審)李龍秀、金永俊(線審)三氏審判下에 儆新先攻으로 開始한바 (競技時間六十分間)

	【儆新】	【儆文】
FW	[illegible]	[illegible]
HB	[illegible]	[illegible]
FB	[illegible]	[illegible]
GK	[illegible]	[illegible]

中央2 中東2【前1…0、後1…2】

中央對中東戰은 六日午後四時八分부터 培材球場에서 [illegible](球審)、鄭商淇(線審)三氏審判아래 中東先攻으로 開始되엿는바 結局二對二의 大接戰으로 勝敗를 決定치못하고 無勝負로 마치엇다(競技時間六十分間)

	【中東】	【中央】
FW	[illegible]	[illegible]
HB	[illegible]	[illegible]
FB	[illegible]	[illegible]
GK	[illegible]	[illegible]

培材1 普成0【前1…0 後0…0】

培材對普成戰은 六日午後五時五十八分부터 儆文球場에서 文?(球審)、金學俊、李龍秀(線審)三氏審判下에 培材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一對零으로 培材軍이 快勝하엿다(競技時間六十分間)

	【培材】	【普成】
FW	[illegible]	[illegible]
HB	[illegible]	[illegible]
FB	[illegible]	[illegible]
GK	[illegible]	[illegible]

로 開始한바 結局七對三으로 善隣軍이 勝捷하엿다

龍中	1010000	3
善隣	00030300 1	7

올림픽競技場委員 第六次例會

【東京特電】올림픽東京大會 競技場委員會 第六次例會는 五日午後三時之內 中央亭에서 開會한바 [illegible] 水泳、陸上、蹴球、籠球、野球、漕艇、馬術、스키ー、스케ー트等 各競技團體委員과 協議한結果 競技場問題에對하야 [illegible] 最後的態度를決定하기로 되엿는데 그委員會에서는 東京大會를 爲하야 神宮外苑의 競技場을 中心으로한 [illegible] 그리고 此案은 가장實現可能性이 [illegible] 意見이一致되엿스나 岸田私案은 [illegible] 岸田氏의協力하야 [illegible] 競技場委員會[illegible] 同時에 內務省側은 [illegible] 會見하는 [illegible] 國民精神作興의見地로 神宮外苑의 大神苑化를 計劃中임으로 [illegible] 競技場委員會案과 [illegible] 內務省側과 連絡할 必要가잇슴으로 詳細한 計劃案이完成되면 組織委員會의 承認을 어더 內務省에 提出하기로되엿다 그리고 競技場委員會에서 일즉이 計劃한 外苑競技場隣接一萬一千坪의 建設案에 對하야도 內務省側의 諒解가잇스면實現될것으로 [illegible] 同案實現化에 努力할豫定이다

官業庭球第五日

府廳軍快捷 專賣對遞信未濟

京城府廳主催의 春季官業庭球聯盟第五日의 府廳對殖銀戰(殖銀코ー트)과 專賣對遞信戰은 昨六日午後四時五十分부터 [illegible] 府廳軍好調를 보이여 快勝하엿스나 專賣對遞信戰은 遞信一組를 各其남기고 日沒로 中止하엿는데 來八日에 殖銀코ー트에서 繼續擧行하기로 되엿다

【府廳】勝　【殖銀】

(第一라운드)
○(宋貞鎬、朴?用)4…0(驪?、[illegible])×
○(洪淳、[illegible])4…3(鄭士達、渡邊)×
○(李仁俊、[illegible])4…2(朴源福、朱瀅福)×
○(洪承杰、金種若)4…1(長沼、秋山)×
○(張備星、李鳳鏡)4…3(任完淳、古屋)×
○(金石泉、崔秉燦)4…3(朴?、孫?)×

【專賣】?【遞信】

(第一라운드)
×(金永俊、朴寅浩)3…4(小川、大友)○
×(李鳳基、梁在景)1…4(朴鍾輝、孫?)○
○(白潤輔、李正玉)4…1(姜?植、李永均)×
○(金世羽、金潤鶴)4…1(松田、元大奎)×
○(黃泰成、淺野)4…3(宮崎、李鍾植)×

(第二라운드)
×(白潤輔、李正玉)2…4(小川、大友)○
×(金世羽、金潤鶴)1…4(朴鍾輝、孫?)○
(黃泰成、淺野)?(小川、大友)

高興近議員立候補者 法學士 金相潤氏

全羅道議員立候補者金相潤氏는中樞院參議金相亨氏의令弟로京都帝大法科를卒業하고法學士의榮譽를차지한新進勇士로서現在數十萬圓을投하야干拓事業을經營中이며高興體育會長의任에在한當年三十四歲의有爲의人物로道政에理解가充分하고民政에精通하야一般郡民은氏의當選을企待한다더라(高興)

善隣7 龍中3

京城中等學校野球리ー그…龍中對善隣戰은 六日午後四時三十五分부터 京城球場에서 善隣先攻으로

中等籠球戰績 第一高普快勝

籠球리ー그戰第三日…第一高普對龍中戰은 六日午後五時五十分부터 龍中코ー트에서 開始한바 結局二十八對八로第一高普軍이 이겻다

第一高普28（8 20…4 4）8龍中

今日의運動

▲籠球=第七回中等學校及俱樂部籠球聯盟戰第二日…漢商對徽新(午後四時)徽文對培材(午後四時五十分)中央對協實(午後五時四十分)南自對延專(午後六時半)以上 鍾路青年會後庭코ー트 觀覽料=十錢均一

▲蹴球=第十回中等學校蹴球聯盟戰第二日…儆新對培材(午後四時半)徽文球場 普成對中東(午後四時)中央對儆文(午後五時廿分)以上培材球場

▲庭球=京城實業庭球리ー그戰第六日…午後四時五十分 專賣局對總督府(殖銀코ー트)商銀對殖銀(朝銀코ー트)

▲軟式野球=京城軟式野球大會第七日…準準決勝 專賣局對醇和俱樂部 午後四時半 獎忠壇球場

第七回籠球聯盟戰

今日의푸로 【第二日】

中等部=漢商:徽新(四時) 徽文:培材(四時五十分) 中央:協實(五時四十分)

俱樂部=延專:南自(六時半)

鍾路中央基青後庭코ー트 (入場料十錢均一)

本社後援

第五回全朝鮮女子卓球大會

◇時日 五月二十二日午後一時

◇場所 鍾路中央基青運動室

◇申請 五月十九日까지 住所、氏名、所屬을明記하야 京城府光化門通一四八同會事務所로 申請할것(參加金不要)

◇主催 朝鮮女子體育奬勵會

◇後援 朝鮮日報社

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創製

銀內服劑의新發見!

急慢性淋疾短期療法의完成!!

從來의淋疾療法은 長久한時日과 多額의費用을消費하는것을當然한것가티生覺하엿고 또그러타는것은 不定치못하엿스나 그러나京都帝大教授理學博士와小山田理學博士가 協力研究發明한特許『바로ー루』의製法이完成되여 이것을應用한結果 斯界에비로소 超銀粒子의內服化達成에서 新治淋劑바로ー루의出現을보고 以來淋疾의治療에對한臨床醫家及患者의 認識을一新하엿스며 治淋界永年의宿題로되여잇든男子急慢性淋疾短期療法이 그端緒를엇기에이른것이다

深達殺菌作用

即 바로ー루는 强烈한殺菌消炎作用을가진白檀油와銀의 二大治淋藥物의特殊한處理에成功한無味無臭 服用하기쉬웁게 만든것으로서內服함과마자 直時腸壁에서 血管淋巴管으로吸收되여그循環에任하야 全組織에滲透하고特有하고强大한深達作用을發揮하야、洗滌注入、挿入等의外用局所劑에서는到底히效果를 따르기어려운尿道側管及深奧한攝護腺膀胱、副睾丸、腎盂、子宮內膜卵巢喇叭管等各部에到達하고 그곳에巢喰하는淋菌을 全面的으로殺滅하고 病竈를破壞하야 炎衝을鎭定식히며 患部組織을新生식히는特殊한 殺治效果를가진고로 그治淋轉機는 大端히迅速確實하다

服用後의變化

그러면 바로ー루服用後는 治療經過는 全혀獨特하야서、다음과가튼變化가 特히現著함

▼疼痛이減退消失한다

▼濁尿가淸澄하여진다

▼血尿膿尿의排泄量이적어진다

▼婦人白帶下가減少한다

▼排尿障害가現著하게增加하엿다

또한 連服하야粘膜을刺戟치도 胃腸障害의副作用을따르는 일이업는바로ー루의一大特長이다

製法特許

バロール

바로ー루即『銀오루가노조루산타루油』는 京都帝大化學研究所에서 其特許施設의理化學的操作으로 嚴密히製造되며 또한同大學附屬病院泌尿科及婦人科에서 使用하고잇스며 그治驗成績의 極히優秀한結果에잇서서는同大學醫學部皮膚科泌尿科教室醫學博士片山義郎先生이 皮膚科紀要第二十二卷 第三號에發表하엿고 이것을醫學會에報告하엿다 그래서 바로ー루가얼마나權威잇는 治淋藥인가를알수잇스며 本劑가一般市販의治淋藥과는 스스로 그選擇을달리하고잇는點에도注意할것이다 詳細는『淋疾と其療法』冊子를 請求하면 더잘알것이다

無代進呈 新刊『淋疾とその療法』이라고題한 四六判四十餘頁詳細圖解入한冊子를 希望하는이는 新聞名을明記하야申込하라 一名에 一冊式無代送呈함

▼바로ー루는全國各地有名藥店에잇다萬一品切인때에는直接發賣元에 注文하면 送金은 郵券代用도可

價格 [illegible]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鍛冶町大通 大阪市東區淡路町(大手橋西詰)

圓文社

◎新興키네마特作 女子よ何故泣くか? 五月七日부터 每日三回 十時半·一時半·六時半

◎新興키네마特作 おつる [illegible] 監督 田中[illegible]

◎네오·스·라·코에 타ー키ー 踊る[illegible]

桃花劇場

◇五月六日부터三日間 特選夜二回上映 大衆料金 낫一時、밤六時

◇와너社超特作 불타는 [illegible] 라가그니 主演 (제임스·캐그니) 監督 로이드베이콘

◇와너社超特作 부라운써커ー쓰 主演 (조ー·E·부라운) 助演 (파트리샤·에리쓰孃)

◇마키노社超特作現代劇全發聲映畫 喜活劇 青春五人男 監督 牧野正博氏 主演 (水原、?紅孃、一郎氏)

次週=特高檢察隊=心臟が強い=大江戶の魔劍

新富座

◇五月六日부터三日間! 土曜日曜祭日은晝夜二回上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探偵劇 特高檢察隊 監督 루이、킹크氏 主演 (리차드、딕스氏 / 마가렛트、카리한孃)

◇PCL社超特作全發聲版! 現代劇 心臟が強い 監督 大谷俊夫氏 主演 (橫山エンタツ氏 / 花菱アチャコ孃)

◇甲陽超特作ネオスパトーキー版 時代劇 大江戶の魔劍 監督 熊谷草彌氏 主演 天津龍太郎氏 特別出演 羅門光三郎氏

次週天國爆擊隊=どんぐる大名

京城新富町 電(本)五六七七番

光武劇場

◎五月五日부터三日間開催 ◎朝鮮映畫鑑賞週間開催 晝夜二回始映 낫一時 밤八時 料金 大衆席 十錢

▲金剛키네마超特作映畫 朝鮮映畫最高篇 青春의十字路 主演 李源鎔、金蓮實、朴?、申一仙

▲朝鮮키네마第六回作品 朝鮮映畫 뿔빠진황소 朴齊行、朱仁奎、南宮雲、李月華、安鍾哲、金素英 共演

▲파라마운트特作映畫 正喜劇 結婚營業 (아돌프·맨쥬、제스타·콩크린) 主演

◎次週豫告=銀河에흐르는情熱、開化黨異聞、그후의李道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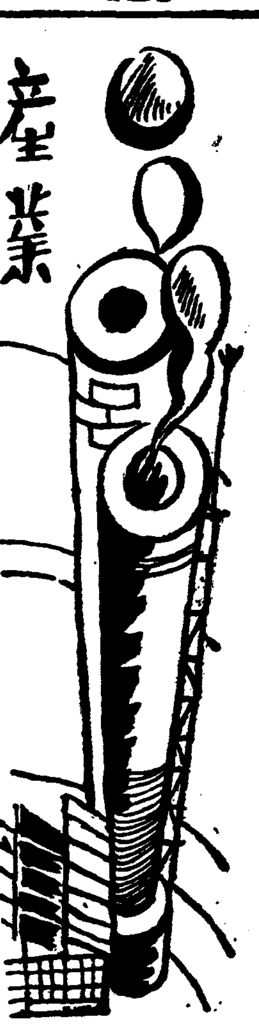
往十里町 光武劇場

若劇

五日ヨリ 晝夜三回 大人五〇錢 學生小人三〇錢

スタアと選手	11·30	2·50	6·45
大毎ニュース	1·00	4·20	8·20
後篇(秋ふたゝび) 良人の貞操	1·10	4·30	8·30

(1)ワーナー作品クラーク·ケイブル マリオンデイヴイス主演 (3)PCL作品 入江たか子·千葉早智子·高田稔主演



家蠶絲生產高 五十萬二千餘貫
比前年一分三厘減少

總督府農林局調査에依한 十一年度의 家蠶絲生產狀況은 製絲戶數 器械에依하는것 七十四戶(그中三戶休業)釜數九千百三十五釜(그中使用치안는것百五十五)에 其生絲製造高는 百二十二萬一千六百十三瓩 (三十二萬五千七百六十三貫) 一千三百六十九萬七千百圓 其他에依하는것 戶數二十四萬四千七百四十八戶 (千三百三十一戶休業) 釜數三十三萬七千三十二釜(使用치안는것 一千五百三釜)에 生絲製造高는 六十六萬三千九百十八瓩四 (十七萬六千八百二十六貫)五百二十七萬九千八百二十五圓으로 總製絲戶數는 三十四萬四千八百二十二戶 (一千三百三十四戶休業)釜數 三十四萬六千百六十七釜(使用치안는것 一千六百五十八釜)에 總製造高는 百八十八萬四千七百十一瓩四 (五十萬二千五百九十貫) 一千八百九十六萬六千九百二十五圓이어서 前年에比하야 戶數 一萬六千四百七十八戶(四分六厘)釜數 一萬五千五百九十釜(四分三厘)製造高 二萬四千五百二十一瓩六 (六千五百三十九貫)(一分三厘) 價格二十六萬六千百二十八圓 (一分四厘)의 減少를 示하얏다 그리고器械工場의職工數는 男三千百八十八人 女九千三百八十八人合計一萬二千六百七十六人으로 前年에比하야 男工은二千九人(二分五厘)의增加 女工은七千九人(八分三厘)의減少를 示하얏다

蓄材는 만코도 木炭을搬入
慶北서林道開發運動

【大邱】無盡藏의林野를 가진慶北道內에서는 木炭이 每年不足되어 日常生活에 만흔不便을주고잇다 慶北道內의 林野面積一百二十七萬九千町步內에 蓄積量이 一千一百五萬九千四百尺締인데 木炭의 每年生產量은 五百六十七萬七千十八瓩으로 道外로搬出되는木炭은 一百四十九萬六千二百二十一瓩에 不過한데 道內로 搬入되는것은 二百六萬三千五百二十九瓩이라한다 이래서結局 道內의 生產力으로서 自給自足이못되어 道外로부터 每年四十六萬七千三百五瓩을 仰하는狀態인데 慶北이 無盡藏의林產物을 蓄積하고잇슴에도 不拘하고 木炭의不足을 生하게되는主要原因은 林道의 未開發에잇슴으로 道內各地에서는 林道開發促進運動이 開始되고잇다 한다

永興產組事業擴大

【永興】十三萬圓의 負債를지고 死線에서 活路를찾기에 苦心하는 咸南永興產業組合은 今般金融組合聯合會로부터 更生될때까지當分間 無利子로 三萬六千圓 總督府當局으로부터 事業援助資金으로 每年一萬五千圓식 五個年繼續하야 無利子無期限으로 貸與하고 또道地方費로부터 過去에 每年 一千二百圓式 補助받든 것을 二千圓으로 增額하야 補助받게되엿슴으로 지난三月三十一日附로 數年間의 資金調達機關으로 두엇든 明紬、麻等의 共同販賣組合을 解散시키는 同時에 永興特產品인 明紬、麻等은勿論 이밧게 今年부터 新規事業으로 藁莚叺、食鹽、石油其他日用品의 購買事業、薪炭의委託販賣、大豆、小麥의共同販賣等을 새로히하게되엇다는데 이新規事業의 實施를압두고 지난二十六日 同地在鄕軍人會館에서定期總會를開催하고左의 議案을決議하엿다

一、事業報告
一、監査報告
一、財產目錄、貸借對照表、事業報告、監査報告承認의件
一、定款變更의件
一、準備金處分의件
一、販賣、購買品種類決定의件
一、販賣、購買品取扱手數料의件
一、役員改選의件

全南畜試에서 緬羊과家鴨試育
結果가良好하면農家에奬勵

【光州】全南道畜產試驗場에서는 只今까지 鷄、豚、兎等에 關하야서만 試育 또는 一般農家에 分配奬勵하야왓섯는데 從來와方針을 달리하야 緬羊、家鴨을今年부터 試育하야 그結果에따라 緬羊、家鴨도 農家副業으로 奬勵할 計畫이라한다

慶北道緬羊 計畫擴充
二百頭配給豫定

【大邱】慶北道에서는 農家副業의 一部門으로서 緬羊擴充計畫案을 決定하야 爲先 今年度에는 道內에잇서서 尙州、金泉、慶州等의 三郡農會를特定하고 二百頭를 配給하야 飼育하기로되엇다한다

咸北道郡農會聯合 馬羊品評會를開催

【淸津】咸北道農會에서는 各郡農會와 協力하야 馬羊品評會를 開催하리라는바 時日場所는 來十月九日로부터二日間 會寧邑內家畜市場으로 該品評會를 通하야 產馬計畫과 羊政策에는 至大한 影響이 豫想되고잇다는바 同時에 多數地方民의 動員을機會삼아 各種會合이잇스리라한다

明川種羊場 生產率九〇%

矢島農林局長은 六日의 局長會議에서 北鮮視察의 感想과 肥料問題等에 對하야 左와가티報告하얏다

吉州의 北鮮製紙化學工業會社의 落成式에 出席한 關係로 明川의 種羊場을 視察하얏는데 種羊場의 種羊生產率은 九〇%요 生存率은 百%의 好成績이다 四、五月은 山火의 季節로 五日에는 江原道의 東大海岸林으로부터 發火되어 被害가 相當히 大面積에 達하얏다 昨年中의 山林火災面積은 三千五百町步로 그被害額은 十一萬七千圓에 達한다 그警戒에 對하야는 目下 開催中의 山林課長會議에서 特히 强調할터이다 硫安의 販賣價格은 今年은 日本內地보다 朝鮮이 割低하야 그利益은 消費者에게 充分히 歸할것이다

鰮資五割增
一千五百萬圓?

東海岸의 鰮關係資金은 油肥聯合을 通하야 各道組合이 殖銀으로부터 融通을 밧게되어 今年度의 金融은 目下 折衝中인데 今年의 鰮景氣好調로 一躍五割程度의 膨脹이 豫想된다 昨年度는 追加로 最高一千萬圓에 達하얏는바 今年은 一千五百萬圓程度에 達할터이다 그리고此外殖銀으로서는 鰮巾着網 其他로 約六百萬圓의 融資가잇섯는데 今年의 이關係의 資金도 增大하야 約一千萬圓에 達하리라고보인다

咸南鰯油肥水產組 二百四十萬圓起債

【咸興】咸南鰯油肥水產製造組合에서는 今年度事業資金으로 二百四十萬圓의 起債를決定하얏는데 原料購入資金二五萬圓 共同購入資金十五萬圓 前後資金百萬圓이라고한다

木浦海藻出廻 例年보다早速

【木浦】木浦海藻檢査所와漁業聯合會木浦出張所에서 이지음겨우乾海苔의 出廻가끗나자 곳뒤이어 海藻가 出廻하기 始作하얏다는 今年度의 海藻出廻는 天氣가 溫和한 關係上 去年보다 二十日 일즉은모양이라는바 聯合會木浦出張所에서는 今年부터 實施될 海藻取扱方法과 販賣方法의 改正發表를 기다려 實施에 着手하리라는바 珍島、靑山島에서는 벌서부터 미역의採取도 相當多額에 達하야 改正規定이 發表되기까지에는 從前대로 施行할것이며 濟州에도檢査支所를 設置할터이라한다

組合을增設코 田作에拍車
慶北道의今年新計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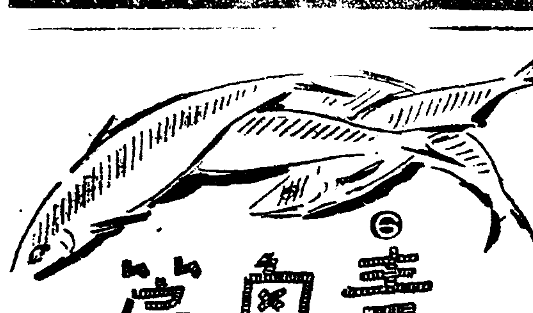
【大邱】慶北道에서는 農林局方針에 順應하야 今年부터 田作組合을 增設하고 積極的으로 田作의 增產을 計畫한다는데 道內旣設組合數는 現在六十九組合으로 組合員은 一千九百六十二人 耕作段別 畓一千二百四十二町九段、田九千六十八町의 合計二千百四十九町七段步라고한다

平南道殖產契 七十個를新設

【平壤】農山漁村更生의 一助라하야 殖產契를 奬勵하야 平南道內 現在八十二組에 達햇는데 그成績은 極히 良好하기때문에 道理財課에서 積極的으로 增加식힐計畫을 樹立하고 方今各郡에서 實情을 調査하야 年次計畫을 決定키로되여 今年中七十個의 殖產契를 設置키로 準備를進行中이라한다

元山에操車場設置

【元山】鐵道局의 五個年計畫에 依하야 二三年後에는 元山에다 操車場을 設置하리라고한다 卽 京義、京釜線에 設置하는것이끗나면 元山驛構內를 擴張하야 設置하리라고한다。그設備는 規模가 크지안호나 列車編成의 迅速을 期하기爲하야 現在의 客貨車入替線을 增設하며 機關車를 더두는 程度에 끗치리라고 한다。



浦項"加工靑魚" 京阪神市場에君臨
斷然北海道產을壓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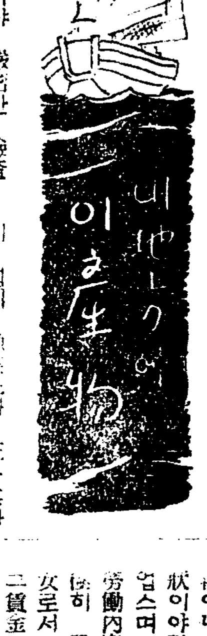
浦項支局長 金順宗

販賣狀況

魚獲의 數量으로보아迎日灣內만으로도 六千圓에가까우며 灣外產을 合하면年魚獲이約三萬圓에가까운靑魚가 如何한形式으로 販賣되느냐하면浦項은靑魚名產地이니만큼靑魚捕獲時期가되면 朝鮮內의 魚商은勿論이러니와 멀리日本內地及南北滿洲의魚商들까지 모여들게됨으로田畓百同의 靑魚가陸揚되어도容易히 賣買되므로 江原道方面의 所產까지 浦項에集中되어 靑魚委托共同販賣會社인 慶北水產會社의손을 거처서 널리 東洋各魚市場으로生魚그대로 或은 鹽漬、干靑魚로 加工廠에서 出되어서 大歡迎을 바드며 消化되는바 浦項埠頭에 上陸되는 靑魚數量中約四割가량은 加工業者의 손을것처 身欠靑魚로 製造되어靑魚卵(鯑)과 身欠靑魚가 日本內地의 九大都市의 各魚市場에 君臨하야 北海道產等이追從할수업는 大歡迎을바듬으로 加工業者의數는 해를조차 느러서 四、五年前만해도 二三個所에 不過하든身欠靑魚工場의數가 今年에 이르러서는 十個所의 工場이 서게되엇스며 製品의 質的向上과 販賣統制를 爲하야 「身欠鯡組合」까지 創立하게되여 大量의生產을 하게되엿스니 浦項의產業界로보아서는 一大有望事業이라고 하지안흘수업다한다 適切한氣候、熟練된 技術로서 加工製造된 身欠靑魚는 一定한日의 乾燥를 맛치면곱게짠 正味六貫入의 石油箱型木箱에 너어서 뚜정을 덥흔後 權威잇는 嚴密한 檢査를 맛친後 비로서 日本內地의 九大都市로 向하야 搬出되나니 今年의 그搬出數量은 아래와갓다고한다

▲身欠靑魚製造高

品名	數量	金額
身欠靑魚	三六、六六六箱	一三〇、六七〇圓
鯑(靑魚卵)	二、四四九箱	三一、四〇〇圓
胴靑魚(肥料用靑魚骨等)	八〇〇俵	五、八五〇圓



加工員及工場勞働者의生活狀況

靑魚捕獲業에 從事하는 海上勞働者의 數는 擧細網船員合하야 約四千餘人(灣內魚場從業者多數)에 達하는데 이들의 收入은 一定한 固定收入이 업시 漁業主와 三冬食料를 契約하고 事業主가 貧窮하고 一步制限되어잇서 配當은 잇도록 約束되여잇슴으로 겨울살이간 漁業에 從事하야 魚獲高의 二割乃至二割五分의 配當을 바다서 船員一同에 分配하게되나니 多幸히 그가就業한 漁場에서 靑魚가잘잡힌다면 三冬의 苦役이헛되지안흐나진봄 撤場後에는 幾十圓의配當을 바더서 歸鄕할수잇지마는 例年을보아서이러한幸運者는 極히少數인中더욱이 今年가튼 漁凶이 진해는 거이全部가 쥐고 歸鄕할 돈은姑捨하고 三冬의 酒食等의 雜費조차 淸算치못하야 夜間逃走를하는等의 事實이 非一非再이니 그들의 悽慘한 生活狀이야말로 무어라 形言할수업스며 身欠靑魚工場勞働도 그勞働內容이 힘을 要하지안는 極히 單純한勞働이니만큼 婦女로서 能히堪當하게되여잇서그賃金이低廉하야 熟練된技術을 가진婦女라야 아침六時부터 午後六時頃까지 勞働하야 最高七十錢으로부터 最下五十錢을밧고 未熟練勞働者이면二十五錢으로부터 四十錢가량밧게 맛지못한다고한다 (完)

寫眞은身欠靑魚製造場一部

鰮巾着網許可 慶北은十八件

【大邱】慶北道內의 鰮巾着網漁業許可處分에 對하야 四日道水產課에 通知가잇섯는데 許可十八件中 日本內地人이 十三名이고 朝鮮人이 五名이라한다

▲許可者

氏名		操業區域	許可期限	漁業期限
甘浦	桝本貞二	咸南、江原、慶北	自十二年五月三日 至十五年二月二八日	自五月一日 至二月卅日
同		同	同	同
浦項	小倉政七	同	同	同
九龍浦	高雄高吉	同	同	同
釜山	日本水產株式會社釜山支店	同	同	同
同		同	同	同
浦項	松村常市	同	同	同
江口	濱田錄男	同	同	同
九龍浦	橋本善市	同	同	同
浦項	濱田惟和	同	同	同
同		咸南、江原、慶北、慶南	自五月一日 至二月廿八日	
浦項	石原榮	同	同	同
同	金龍周	同	同	同
九龍浦	岡崎太平	同	同	同
浦項	姜萬錫	同	同	同
同	尹斗炳	同	同	同
九龍浦	金斗河	同	同	同
九龍浦	十河彌三郎	同	同	同

咸南도煙草栽培
咸州와新興兩郡에 五十三町五段步餘

【咸興】專賣局咸興出張所에서는 今年度부터 咸南道內에도 煙草試作을 하게되어 關係郡과 折衝中이든바 이지음 咸州新興兩郡의 栽培面積은 五十三町五段十畝로 栽培人員은 九十八里五百三十人으로 決定되엇다

淸津에鹽魚工場

【淸津】咸北鹽魚水產組合에서는 過般 淸津漁港에 同組合工場을 新設코저 起債認可手續을 마치고 設計에 着手하얏든바 設計의 完了를 보앗스므로 不遠工事에着手하리라는바新設될工場은 工場敷地 三千餘坪 延建坪 五百坪 工場能力 (一等) 六千樽 이라는 理想的工場으로 七月末까지는 竣功을 볼것으로 이

忠北春蠶掃立 四萬餘枚豫想

【淸州】忠北道內 今春春蠶掃立枚數를 보건대 四萬一千八百七十八枚로 昨年度 掃立枚數 三萬九千八百八十四枚에比하야 千九百九十四枚의 增加를보일모양이라는바 同掃立을 郡別로 細記하면 如左하다

▲淸州二、九六七枚▲報恩三、八五四枚▲沃川四、二二六枚▲永同四、三七九枚▲鎭川一、三九四枚▲槐山三、九五七枚▲陰城二、六九四枚▲忠州九、一八六枚▲堤川五、三五三枚▲丹陽五、七〇六枚▲計四一、八七八枚

榮州春蠶掃立枚數

【榮州】榮州의 特產인明紬는 其聲價가 全朝鮮的으로 普及되어 一般生產者는 漸次로增產計畫을 세우고잇는데 郡農會에서는 今年春蠶에 八千七百餘枚의 多量을 購入하야各養蠶家의 需用에 備케되엿다는바 昨年의 五千四百枚에 比하야 三千三百枚의 增加라한다 그러고도오히려不足될 念慮가잇서서 벌서秋蠶까지 樹立하얏다한다

會事合同材木會社 來月頃에創立豫定

【會寧】木材都市인 會寧製材業界에서는 新界前途에 備코저共同의目的으로 木材會社를 創立한다는바 旣報한바이니와 臨時事務所는 會寧製材所內에 두고 各製材工場의 許可는 大概定되어꾿갓스나 아즉秘密에 부치고內容으로 準備中 合同에 對한正式發表는 來月頃에하리라고한다

朝鮮의洋灰 生產制限 繼續할模樣

【平壤】朝鮮內에서 消費하는洋灰는 年年增加를보이어서 再昨年度는 六十萬噸이든것이 昨年度에는 一躍三割三分强의 八十萬噸으로 增加하야 아직 今年度에는 다시二十五萬噸의增加를 豫想하게되여 百萬噸에 達할形勢이다 그런데 朝鮮에서의 製造能力은 朝鮮小野田이 九十萬噸 朝鮮淺野十八萬噸 洋灰는五十五萬噸 合計百六十三萬噸으로되엿고 未着手의朝鮮小野田의 三陟工場의十八萬噸을加하면 百八十一萬噸으로되여 生產은 大過剩을 보게되는關係로 生產量의相當한 生產制限을 하게될 模樣이라한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四〇八四	金銀鑛	忠南大德郡山內面	三月二十五日	論山郡陽村面 金台鉉
一四〇八五	金銀鑛	忠南燕岐郡全義面、全東面	三月二十六日	原州郡原州面 代表者崔榮來 京城府長橋町 金炳球
一四〇八六	金銀鑛	平北熙川郡新豊面	同	熙川郡新豊面 代表者石原榮一 同 李鍾國 同 鄭禮珍 京城府司諫町 金淑煥
一四〇八七	金銀鑛	忠南靑陽郡飛鳳面	三月二十七日	京城府觀水町 方夏谷
一四〇八八	金銀鑛	咸南長津郡郡內面	同	京城府樓下町 李鍾萬
一四〇八九	金銀鑛	平南寧遠郡太極面	同	平壤府鹽店里 朝鮮鑛業株式會社
一四〇九〇	金銀鑛	咸南咸州郡下岐川面	同	咸州郡上岐川面 代表者韓禮淵 京城府益善町 劉載德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一九三四	平南寧遠郡德化面	三月二十五日	寧遠郡永樂面 代表者劉士元 同寧遠面 韓章廷 同 李泰榮 同 申泳植
一二四六二	平北雲山郡寄時面	同	雲山郡寄時面 田季春
九〇一〇	平南成川郡崇仁面	三月二十六日	東京市麴町區 日本鑛業株式會社
二八四六	江原洪川郡斗村面	同	京城府淸進町 代表者鄭明善 陰城郡金旺面 淸水省三 京城府薰井町 金春三
一一八三五	咸南洪原郡好賢面	同	北靑郡北靑邑 代表者尹希孝 松禾郡長陽面 吳義衍
一一九五	咸北鏡城郡朱乙溫面	同	明川郡西面 朝鮮石炭工業株式會社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八九八〇	全北長水郡蟠岩面	三月十六日	李建鎔任意脫退함
同	同	同	金德烈任意脫退함
一一七二七	京畿安城郡瑞雲面	四月二十八日	李昌谷任意脫退함
同	同	同	李章魯任意脫退함
同	同	同	成世慶任意脫退함
同	同	同	常盤四郎任意脫退함

◇鑛業權消滅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一六一六	黃海海州郡壯谷面	三月二十六日	廢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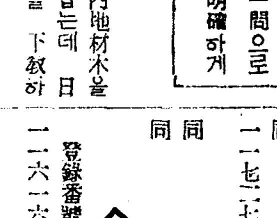
◆產◆業◆短◆信◆

▲全州 全州郵便局의 四月中 業務取扱狀況을보면如左하다 郵便引受七、三七六件 小包引受八、六九四件 同配達八一、八八五件 電報發信五、四八八件

▲南原 全南稅務監督局에서는 納稅優良者表彰式을 一日午前十時에 南原郡廳에서 擧行하엿다

▲淸津 咸北道內金融組合理事會議는 去五日부터 三日間道廳會議室에서 開催되엇다

▲淸州 朝鮮金組聯合會忠北支部에서는 오는 十三日부터 兩日間 道內金組理事를 召集하야同支部樓上에서 理事會를 開催하기로되엿다



質疑應答은 一問一答으로 簡單明瞭하게

◇日本內地木材商

問 米國材와 日本內地材木을 大量으로 取引코저하옵는데 日本內地方面의 木材商을 下敎하시옵소서 (全北讀者)

答 東京商工會議所 大阪商工會議所 神戶商工會議所等에 問議하시오

◇火藥講習會有無

問 朝鮮警察協會主催로 昨年夏期에 火藥講習會를 開催한일이잇는데 今年도 開催하는지오 講習生資格及 手續方法을 下敎하시옵소서 (定州一讀者)

答 定期로開催하는것이아니고 臨時로 行하는것인데 今夏는 開催하지안는다고합니다

▲綿布漸高 米棉五〇錢高와 印棉五五錢高의 材料로 續騰이나 三品各限은 不變伸惱狀態이며 市中現物界는 實需盛行이 多少잇고 買氣潛在하야 市勢는 漸高傾向이다

▲鰮粕爆騰 朝鮮產鰮粕은 日來爆騰에 爆騰을 加하야드듸어 六日朝來의市況은 五圓七十錢(六月積)을出現하야 關係者를 呆然케하고잇다 그러나이暴騰은單只日本內地의 問屋側市勢에 끗치고 朝鮮에서도油肥聯、三菱모다 이미 賣盡하야 모처럼의 高價도傍觀하고잇슬뿐이다

▲白米引上【大邱】大邱府內 白米小賣商組合에서 原料가高騰됨에따라 五日又復五錢引上을 斷行하얏다 此로因하야 十五『키로』入으로 ▲二等三圓四十五錢▲一等三圓五十五錢이란高價를示하게되엇는데 一般月給生活者의 打擊은益益深刻化한다고한다

▲鐵物低迷 鐵物은 總選擧後의 政府와 政黨間의軋轢、政府의高物價抑壓政策 同時에外國輸入鐵에 對한關稅免除等의材料出로 四月中旬以來低弛를示하고잇서 이때까지 市勢의不安定으로 一切傍觀하고잇든 需要側에서는 漸次買進하야 活況을 보히고잇다 過般來高價에겁을먹고 需要側에서 買滯하든關係로 今年의 需要는 前年同期에比하야 需要가 約四割이나 上昇될것은 必然的이라하며 그우에基本的으로 鐵鋼類으로 鐵物의原料가 不足됨으로 一般的으로先高騰이 有力한데 大日京城市勢를보면 大體다음과갓다

◆亞鉛引平板 幅三尺長六尺 各一枚에
▲手一番一級品 赤門 一・二七 羽矢 一・二七 亨平로平 一・二七 地球 一・二七
▲厚板 二十九番 一・四六 二十七番 一・六三 二十五番 二・二五 二十二番 二・四四 二十番 四・五五

◆亞鉛引小浪板 各一枚에
▲三十一番 六尺 〇・九七 七尺 一・一七 八尺 一・三三
▲二十九番 六尺 一・二五 七尺 一・四四 八尺 一・六五

◆亞鉛引大浪板 各一枚에
▲三十一番 六尺 〇・九七 七尺 一・一七 八尺 一・三三
▲二十九番 六尺 一・二五 七尺 一・四四 八尺 一・三三

◆丸釘 百斤入一樽에
四分三 一八・八〇 一吋 一七・八〇 一吋四分一 一七・一〇 一吋半 一六・六〇 一吋四分三 一六・四五 二吋 一六・二〇 二吋半 一六・一〇 三吋 一六・〇〇 三吋半 一五・八〇 四吋 一五・六〇 四吋半 一五・六〇 五吋 一五・四〇 六吋 一五・四〇 七吋 一六・四〇

◆亞鉛引鐵線 八十四斤一丸에
六番 一三・一〇 四耗 一三・六〇 八番 一三・六〇 三・二耗 一三・一〇 十番 一三・一〇 十一番 一三・三〇 十二番 一三・五〇 十四番 一三・六〇 十五番 一四・一〇 十六番 一四・三〇 十七番 一四・五〇 十八番 一四・六〇 十九番 一五・〇〇 二十番 一五・五〇 廿一番 一六・三〇 廿二番 一六・五〇 廿三番 一七・一〇 廿四番 一七・五〇 廿五番 一七・六〇 廿六番 一八・四〇 廿八番 二〇・〇〇 廿九番 二一・三〇

◆鐵線 一貫에
六番 九・六〇 八番 九・六〇 十番 一〇・〇〇 十一番 一〇・二〇 十二番 一〇・二〇 十四番 一〇・三〇 十六番 一〇・五〇 十八番 一〇・六〇 二十番 一一・三〇

◆洋鐵板 一函에
十二枚入 幅二尺長二尺八吋 四三・五〇 枚賣 〇・四〇

◆丸鐵 十貫에
一分五厘 一〇・六〇 二分 九・八〇 二分五厘 九・四五 三分 八・六〇 四分 九・四五

◆[illegible]
五分 九・一〇 六分 八・六〇 七分 八・六〇 八分 八・六〇 一寸 八・六〇 一寸二分 八・六〇 一寸四分 八・六〇 一寸六分 八・六〇 一寸八分 八・六〇 二寸 八・六〇

◆鐵條網 一卷에
大卷(約三百間) 一四・五〇 小卷(約百五十間) 七・五〇

◆白銅板 百斤에
六寸幅(東京製) 一四〇・〇〇 二十番 一四五・〇〇 廿二番 一四八・〇〇 廿四番 一五〇・〇〇 廿六番 一五三・〇〇 廿八番 一五五・〇〇 三十番 一六〇・〇〇

◆雜類地金 百斤에
丁銲 一三八・〇〇 折銲 一三六・〇〇 닉켈丸 百斤에 一六六・〇〇 純銅 八〇・〇〇 砲金潰 ― 角砲金丸天票 七〇・〇〇 古銅線 ― 鍍地銅 一〇〇・〇〇 生子鉛 四四・五〇 棹鉛 三三・〇〇 丁亞鉛 四〇・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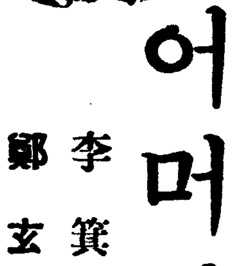
◆鐵板
三尺六尺十貫에 五厘厚 一二・〇〇 七厘五厚 一一・〇〇 一分厚 一一・五〇 一分五厘厚 一〇・七〇 三枚物 一〇・七〇 四枚物 一〇・八〇 五枚物 一一・八〇 六枚物 一一・一〇 七枚物 一一・三〇 八枚物 一一・一〇 九枚物 一一・三〇 十枚物(束) 一四・三〇 十一枚物 ― 十二枚(束) 一四・三〇
四尺八尺十貫에 五厘厚 一〇・八〇 七厘五厚 一一・〇〇 一分厚 一一・三〇 一分五厘厚 一一・三〇 二分厚 一一・三〇
五尺十尺十貫에 五厘厚 一二・〇〇 七厘五厚 一一・〇〇 一分厚 一一・三〇

◆眞鍮板 銅板 幅尺二寸長四尺 一枚에
眞鍮板 銅板
호온스一 一・三五 一・四八
호온스二 一・四八 一・五〇
一斤半 一・六〇 一・七五
二斤 二・一〇 二・〇〇
二斤半 二・四〇 二・七〇
三斤 [illegible]

福田又商店 京城支店調

長篇小說 어머니

李箕永 作 鄭玄雄 畵 【31】



第一、靑孀篇

지나온발자최 (四)

몃칠뒤에 인숙은 망부(亡夫)의 무덤을 차저갓다。

날이갈수록 그와가튼 양심의 채칙질은 점점 더하고、시굴집식구들을 면대한후로는 도리혀 그런생각이 서울잇슬때 보다도 더해갈뿐인 그는、마침내 미칠것처럼 비통한 나머지에 불현듯 성묘나가고 시퍼서 모친에게 사정말을 해보앗다。모친은 그딸의 심경을 엿보고선뜻허락하엿다。그러나 혼저 보내다가는또 어떤 경솔한 짓을 할른지도 모른다고、그는 모자가가티가라고권하엿다。인숙은 모친의 말이 그럴상 시페서 인해 아들을 불러가지고

『덕근아! 나하고 아버지 산소에 성묘가자、너두아버지산소에가본지가 오래지』

사실 그들은 이곳을내로 이사온뒤로는 한번도 성묘를 가보[illegible]

덕근이는 별안간 모친이 그런말을 하는것을 의아한 눈치로 되집퍼 뭇는다。

『어머니、산소에는 추석에 가는것 아니유?』

『그러치만 그런때는 어디 갈새가 잇어야지 네나 내나지금가튼 방학때에 갈수 밧게……』

인숙은 나즉이 한숨을 지엇다。

『어머니 그럼 갈까。─할머니 하라버지 산수도 져기 잇지?』

덕근이는 의심을 풀며조아라 고엉셕을 부린다。모친의 옷소매를 붓잡고 강장강장 뛰면서。

『잇지가머나。계시다고 그러지!』

인숙은 눈쌀을 꼿꼿하게 뜨고 잠간 아들을 흘겨본다。

『참 계시지! 그럼 할머니도 가티 가시우? 응……』

『하하……할미는 진바야지』

『월 집은 잘구구 할머니두가티가야지……』

『못된 버리장머리를 또 하는구나 할머니는 집보서야 한대도……』

덕근이는 몸을 흔들며 어리광을 피운다

인숙은 목소리를 잠간노펴서 아들을 꾸지젓다

『호홍……』

『아가 오늘은 어미하고만 가거라 할미하고는 어댕에 가자!』

외조모는 눈물이 글성글성한 눈으로 우숨을 강작하엿다

『그래 오늘은 엄마하구만 가요─어룬의 말슴을 잘드러야지──』

덕근이는 오히려 불행인듯이 몸을 뒤틀나가 아모래도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안홀 눈치를 채고 그대로 할수업시 따러나서라는 동작을 보인다

『덕근이 참 오늘 호강하겟군! 자동차를 다타보구』

할머니가 놀리는것을

『뭐ㅡ그까지 자동차…』

하고 덕근이는 입을 벗죽 내민다。

『그따위로 말해버릇 말래도그러는구나! 어머니、이애가버려쟁머리가업서서 큰일낫서요』

『무얼 아직 어리니까 그러치…』

로인은 다시 해죽이 웃는때 인숙은 별안간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내며、몸서리를 첫다。

그것은 자기가 아들을 전과가티 꾸지질 자격이 잇는가? 번쩍 그생각이드러간것이엿다。그는 금시로 풀이죽고 머리가 숙어저서 어찌줄을 몰랏다。

인제는 어린애들한테도 잘못을 말할입이 업시되엿구나! 자기는 이세상에서 감히 누구를 비방하고 책망할수잇느냐고…。

그래 그는 다시는 아들을꾸지즐 용기도 나지안엇다。그는 별안간 입을 다무리고 오직애꾸진 눈물만이 미리등대하고잇섯든것처럼 흘려나렷다。……

모친도 그눈치를 채엿든지마주 눈물을 머금고 한곳을마지루며 보앗다。그들은 피차에 말할수업는 사정을 가슴속에서 서려담고 언다까웁게 친목을적힐뿐이엿다。

천진스런 덕근이는 그런줄은 모르고 그들을 우두커니 바라보고섯다가

『어머니 그럼 어서가요?』

하고 모친의 눈치를 보며 다시 졸은다。

『오냐 가자……』

인숙은 손수건으로 코를 풀면서 흐르는 눈물을함께 씻첫다。그리고 그는 덕근이를 압세우고 정거장통으로 힌엿시 걸어갓다。

『해지기전에 일즉오게해라!』

어머니는 문밧까지 쪼처나오며 그딸에게 다시、또한번 당부하엿다。